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4호 【루계 제24902호】 주체104(2015)년 5월 4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전선에서 창조와 혁신의 열풍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총공격전의 기상떨치며 건설성과 계속 확대

과학기술전당, 숙소건물골조공사 활발, 여러동의 부속건물골조 완성, 쑥섬인입다리기둥기초공사 마감단계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과학의 섬으로 전변되는 쑥섬에서 총공격전의 기상이 갈수록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하부구조공사들이 공정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수행되고 과학기술전당 및 숙소건물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크고작은 건물공사들과 방대한 지대정리 및 원림조성사업, 무궤도전차로선형성을 위한 준비공사가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건설장에서 여러 로선의 쑥섬인입다리기둥기초공사는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일부 구간에서는 다리상판콩크리트치기가 시작되였다.

쑥섬전역에서 세차게 휘몰아치는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은 우리 당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따라 오늘의 대고조시대를 빛내이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군인들과 건설자들, 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의 불같은 애국충정이 안아오는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풍치수려한 쑥섬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4월 공사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게 또다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내각과 중앙련합지휘부에서는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선물인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당이 제시한 날자까지 무조건 끝내기 위해 공사지휘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일군들은 단 몇달안에 방대한 공사량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쑥섬개발과 관련한 모든 공사정형을 손금보듯 장악하고 건설자재보장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비상히 높여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당에서 중시하는 건설대상을 단숨에 일떠세우기 위한 군인들과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의 기세가 드높고 각종 륜전기재와 중기계들이 기운차게 가동하는 속에 전반적인 공사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여오르고있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이 방대한 건물골조공사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방송선전차들에 의한 선동과 직관선동을 비롯한 화선식경제선동이 격식없이 벌어지는 골조공사현장은 말그대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격전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공사기일이 흐를수록 건물의 층고가 높아지고 자재소비량도 늘어나 건설기계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고 골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도 보다 원만히 보장해야 하는것이 부대앞에 제기된 새로운 공사조건이다. 이곳 지휘관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새롭고 통이 큰 일본새로 공격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사지휘를 공세식으로, 화선식으로 하고있다. 온 부대적인 관심속에 건물의 둘레를 따라가며 10여개소에 배치된 수직권양기들과 수십대의 혼합기들이 기운차게 가동하고 혁신적인 사색과 일본새로 찾아낸 방도들이 현실에 도입되는 속에 골조공사현장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진격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지휘관들의 뒤를 따라 군인건설자들이 시공단위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건물골조콩크리트치기를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휘틀가공총량의 50%계선이 돌파되고 계획보다 방대한 량의 목재와 발대를 절약하는 능률적인 건설장비와 지구들이 창안도입된 결과 전격전, 립체전의 불길이 높아져 과학기술전당의 웅건한 자태는 나날이 드러나고있다.

쑥섬을 최단기간에 과학의 섬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총진격의 열풍은 여러 로선의 인입다리건설장에서도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모든 하부망공사와 한개 로선의 인입다리건설을 맡은 수도건설위원회 평양시건설관리국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오수 및 지열취수뽐프장골조공사를 단숨에 끝내고 방대한 다리공사과정에 합리적인 공법을 련속적으로 받아들여 건설속도를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이들은 현장구획이 좁은 불리한 조건에 맞게 침강정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휘틀가공, 혼합물생산량과 휘틀의 리용률을 높일수 있는 기발한 방도들을 탐구하고 실천에 적극 도입하여 매일 공사과제를 1.5배로 넘쳐 수행해나가고있다.

철도건설관리국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도 맡은 인입다리건설에서 조선로동계급의 억센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관리국아래 김책중대와 청진중대를 비롯한 모든 시공단위 전투원들은 가물막이와 침강정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낀 기세로 수천정의 침목과 3천여㎥의 내수합판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다리기둥을 손색없이 형성하고 다리상판시공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륙해운성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도 로선이 제일 긴 쑥섬인입다리건설에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창조적인 일본새를 발휘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다리기둥공사의 성과여부가 침강정작업실적에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하고 현장에서 능률적인 굴착기바가지와 혼합물바가지를 자체로 만들어 건설기계들의 가동률을 부쩍 높이며 아름찬 공사량을 일정대로 수행하기 위해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일군들과 전투원들도 맡은 건설대상공사에서 창조적위훈을 아로새기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철근가공과 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다그쳐 맡은 건물골조공사를 최단기간에 끝내고 1단계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자랑을 떨치였다.

쑥섬1다리를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을 맡은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도 선군청년전위의 기개와 용맹을 떨치며 분수공원과 과학기술상징탑구조물들에 대한 콩크리트치기과제의 50%이상을 해제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계속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수도려객운수국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무궤도전차로선형성을 위한 굴착과 구조물제작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한편 전격전, 립체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쑥섬전역으로 달려나간 건설건재공업성과 림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과 평양시안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쑥섬지구의 지대정리와 록지조성을 보다 이채롭게 하기 위한 작업에서 창조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리고있다.

맡은 공사를 반드시 기한전에 끝내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시공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혁명적기세에 박동을 맞추며 매일같이 건설장으로 달려나가는 수천명의 야간지원돌격대원들과 전국의 수많은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뜨거운 지원의 마음도 합쳐지는 쑥섬전역에서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게 될 과학기술전당건설성과는 날이 갈수록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원철

쑥섬인입다리형성을 위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 힘있게 지원

각지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각지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대중을 불러일으켜 발전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은 당정책관철의 조직자이며 대중의 직접적교양자입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하고 도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의 협의회와 도당화상회의를 조직하였다.

도당책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5년전 외국방문을 마치신 길로 불편하신 몸이였지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였는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전소건설장을 몸소 찾아주시고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더없는 영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하면서 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을 받드는데서 우리 도가 앞장서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보장사업을 당적으로 적극 밀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그후 평성시 양지동에 있는 평안남도려단의 한 일군의 가정을 찾아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면서 생활형편을 료해하고 준비해가지고간 액정텔레비죤을 비롯한 많은 물자들을 넘겨주었다. 4월 26일에는 수백명의 로력, 혼합물진동다짐기 5대를 비롯한 설비, 기공구 30종에 800여점, 후방물자 11종에 30여t, 생활필수품 12종에 3만여점, 문화기재 21종에 1만여점과 도, 시, 군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위문편지를 준비해가지고 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 청년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적극 도와줄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들에서 발전소건설을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완공하는데서 도가 전국의 앞장에 서자고 호소하고 도당위원회와 각급 당조직들이 발전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50여명의 도당위원회 부부장이상 일군들에게 신의주시안의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한 도당책임일군은 직접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준비해가지고 신의주시 청송동에 사는 청년돌격대원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그뒤를 이어 800여명의 도, 시, 군급기관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4월 22일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정성껏 마련하여 삼가 올린 흰쌀 100t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자들에게 보내줄데 대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을 때 즉시 현장으로 수송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으며 4월 26일에는 도안의 시, 군당책임비서들과 함께 200여명의 로력과 76종에 266만 7 000여점의 물자를 준비해가지고 청년돌격대원들을 찾아가 발전소건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자강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해당 일군들에게 전달하고 조직부, 선전선동부와 해당 부서 일군들이 협동하여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정방문을 의의있게 조직하며 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후방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도당위원회와 시, 군안의 450여명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정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4월 26일에는 건설자재 3종에 3 380여점, 기공구 13종에 1만 9 800여점을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를 준비해가지고 시, 군당책임일군들과 함께 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게 하는 한편 도당과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준비한 권양기 5대, 착암기 5대, 압축기 2대와 기공구 15종에 5 500여점, 선전선동수단 9종에 250여점을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 돌격대원들을 위훈에로 추동하였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전화로 려단책임일군들을 만나 돌격대원들의 생활형편과 도앞에 맡겨진 공사과제를 앞당겨 끝내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료해한 즉시 도당의 해당 일군협의회와 화상회의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직부, 선전선동부와 해당 부서가 협동하여 공사보장을 당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산세험한 길을 헤치시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까지 찾아주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라선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시안의 당조직들과 대중을 발동하여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를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량강도당위원회, 함경북도당위원회, 함경남도당위원회, 남포시당위원회, 평양시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책임일군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힘껏 도와주고있다.

각지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의 성의있는 지원은 조선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이 남김없이 떨쳐지고있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천만군민의 신념의 산악

◇ 새로 나온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가 온 나라를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고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천만군민모두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벼려주는 혁명의 전구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으로 가리라
…

부르면 부를수록 백두의 넋과 기상이 온몸에 용솟음치게 하고 우리 당따라 끝까지 한길갈 의지를 백배해주는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준엄한 나날에나 행복한 나날에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이 노래들이야말로 혁명의 노래, 투쟁의 진군가가 아니겠는가.

◇ 백두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체형의 혁명가, 견결한 투사로 키워주는 신념의 산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발원지이고 승리의 상징이며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입니다.》

지난 4월 백두산정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신념으로 하는것이 혁명이며 겹쌓이는 난관을 굴함없이 맞받아 뚫고나가는데 혁명가의 진가가 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는 앞길에 엄혹한 시련이 가로놓일수도 있고 판가리결전의 시각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필승의 신심은 확고하다.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거연히 솟아 빛나는 영웅의 산, 백두산이 천만의 심장마다에 신념의 기둥, 최후승리의 상징으로 굳게 자리잡고있기에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

◇ 백두의 혁명신념, 이것은 조선혁명가들의 피줄기이며 생명선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절해고도에 홀로 있어도, 단두대에 올라서도 추호의 변심과 배반을 모른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이였다. 선렬들이 지녔던 혁명신념과 정신은 구호나무의 글발이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항상 투사들의 그 신념, 그 정신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눈속에 묻힌대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부서져 가루되여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열백번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살며 투쟁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백두산의 물과 공기로 마음을 씻고 백두산칼바람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견결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백두산이 영원하듯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신념으로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로씨야방문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로씨야를 방문하게 된다.

농촌에 많은 양수기를 보내준다

함경남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관개건설기계화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만든 각종 양수기들을 농촌에 보내주도록 하고있다.

관개건설기계화사업소에서 생산하여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준 근 백대의 소형, 중형양수기들이 농업근로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관개건설기계화사업소에 나가 협동농장들의 작업반, 분조들에서 건설해놓은 저류지, 굴포와 졸짱, 우물 등이 은을 내도록 모내기철전으로 성능이 좋은 소형, 중형양수기들을 많이 생산하여 보내줄데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지배인 박정국, 책임기사 김봉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용선로와 수소, 산소발생기, 선반, 볼반을 비롯한 전반적인 설비들을 보수정비하고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갔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기술혁신안, 합리화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용선로에 첫 불을 지핀 때로부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주물품소재생산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켰으며 불꽃튀는 가공작업과 조립전투를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과 관개건설기계화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모내기철이 다가올수록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애국의 력사를 소중히 안고 살자

나라마다 자기나름의 상징이 있다.

인류문화의 발상지, 인구대국, 유구한 기념비, 진귀한 물품의 산지…

우리 조국!

크나큰 긍지로 가슴부풀게 하는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기만 하여도 이 나라 대지를 날로 붉게 물들이는 주체의 봉화가 우리 천만군민의 높뛰는 심장에 활활 타번진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이룩하신 공적중 가장 거대하고 불멸할 공적이 무엇인가를 하늘높이 구가하는 주체의 봉화!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다고 하시며 우리 천만의 가슴에 위대한 시대에 사는 긍지가 차넘치게 하고 주체로 휘황찬란한 내 조국의 래일에 대한 환희가 장엄한 송가로 높이 울려퍼지게 하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존엄을 상징하는 주체사상탑은 날로 천만군민의 무한대한 힘과 아름다움을 증폭시키며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도록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 *

오늘에 존재하는 모든것은 과거와 잇닿아있다.

우리의 진정한 애국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이룩해놓은 그 모든것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려는 고결한 사상감정이며 헌신이다.

우리의것, 혁명의 전세대들이 이룩해놓은 그 모든것중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무엇인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만년재부는 주체이다.

우리 식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일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여온 조선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활동력사이며 애국의 정화인 주체성을 생명으로 한 우리 당의 위대한 투쟁행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입니다.》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인민,

이 영광스러운 칭호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만이 지니게 된 더없이 고귀한 칭호이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영국의 대백과사전에도 《세계에서 매우 드물게 보게 되는 단일민족》이라고 쓰지 않을수 없었던 우리 민족,

일찌기 7세기 전반기에 세계에서 이름있는 천문대인 첨성대를 쌓아올렸고 유럽에서 금속활자의 시조라고 하는 연으로 된 활자를 만들어내기 수백년전에 벌써 구리로 된 활자를 만들어쓴 슬기와 재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 우리 민족이였다.

새시대가 도래하기를 안타까이 기다리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갈 수령을 목마르게 부르는 소리가 하늘땅에 메아리치던 조선혁명의 려명기,

그 조선에 마침내 주체의 태양이 솟아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께서 바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인간의 운명개척을 위한 대강인것으로 하여, 불변의 진리를 담고있는 인류사상발전의 최고정수인것으로 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애국으로 피끓는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뭉치지 않았던가.

주체의 기치높이 수령님의 두리에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된 조선의 첫 혁명가들이 개척한 영웅적인 대행진, 도도히 굽이친 그 철의 대오는 이 땅우에 조국해방의 새날을 안아왔으며 사회주의의 승리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진군한 인민적인 영웅시대, 주체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격동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이 신념을 지켜 걸음걸음 주체를 생명으로 폭풍우를 뚫고오신 전설적애국자의 위대한 한생이다.

혁명을 추동하는데서 결정적인것은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는것이다, 조선혁명은 오직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며 우리 수령님 각양각색의 독립운동자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가고 물거품처럼 사라져갈 때에도 눈덮인 백두산야에 발을 든든히 붙이시고 일제와 판가리싸움을 벌리신것 아니던가.

진리는 기성리론의 명제에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혁명투쟁의 실천속에 있다.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념원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길이 바로 진리에로의 길이다.

자력갱생의 상징인 연길폭탄도 우리 수령님의 이런 비상한 주체성의 결정체이다.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겹겹이 막아서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한평생 오직 곧바로 자주의 길, 주체확립의 길로만 꿋꿋이 걸어오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위기에 처한 조선혁명을 그대로 둘수 없다고 고열속에서도 회의장으로 향해가시던 다홍왜의 귀틀집이며 20년만에 보시는 고향을 지척에 두시고서도 이 나라 로동계급을 먼저 찾으시던 만경대의 갈림길, 포화속에서도 조국의 앞날을 구상하시던 장대재며 승리의 광장에서 떠나신 그 걸음으로 찾으신 강남과 황철의 언덕이며 강선의 한그루 백양나무, 깊은 밤 홰불을 들고 나서시던 삼석의 비탈길이며 소소리높은 무산의 선광장, 인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이건 찾아가야 한다고 하시며 진창에 빠진 차를 몸소 떠미시며 현지지도의 걸음을 옮기시던 최북단의 진펄길…

주체의 우리 조국이 걸어온 력사의 갈피갈피마다에는 남에게 얽매이고 뒤떨어졌던 이 나라를 떳떳한 자주독립국가로, 자력갱생의 나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헤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거룩한 자욱이 빛나고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치게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것은 누구도 간섭할수 없는 자주적권리이다.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고 난관앞에서 동요하여 자기의 정치적신념을 버리게 되면 다시 일어설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 거의다가 어느 한 기구에 들었을 때에도 민족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여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기구에 가입할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시였다.

어느 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큰 수력발전소를 건설해놓고 자기 나라에서는 그곳에 공업지구를 건설할수 없기때문에 우리에게 송전선을 늘여 전기를 끌어다 쓰라고 할 때도 있었다.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저들에게 고분고분하게 하려는 하나의 《특혜》였다.

나라의 전기사정이 긴장한것으로 하여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격으로 선듯 받아들일수도 있는 문제였다.

먼먼 그곳에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송전선을 늘일바에는 그 돈으로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수력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건설하는것이 우리 민족의 장래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더 효과적이다.

이런 투철한 자주의식으로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권고를 단호하게 거절하시였다.

우리 조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도 어느 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통합경제》를 집요하게 강요하며 《민족주의》, 《고립주의》라고 비방하면서 이모저모로 압력을 가할 때에 하신 우리 수령님의 선언이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의 벽을 쾅쾅 울려주고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것이다!

이에 대하여 실증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해인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무력시위와 관련한 행사에는 한때 통합경제기구에 들었던 나라 사람들도 대표로 왔다.

여러가지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이 꼬리를 물고 나가는것을 본 그들은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것인가고 우리 일군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자체로 만든것들이라고 하자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남에 대한 의존심때문에 큰 나라가 망하자 다같이 망하고만 나라 사람들이였던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가만있는것 같았는데 저렇게 훌륭한 무기들을 자체로 만들어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였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 일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자주독립국가로 되자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나가고있기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성있게 선언하시였다.

주체성이 억제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될 때 나라들사이의 불평등과 불화가 생기고 진정한 단결과 협조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 남의것, 남의 식을 좋아하고 그것을 본따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주인다운 태도가 아니라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견결한 사상의식이였다.

중심이 없이 바람부는대로 날려다니다가 아무때건 터지고야마는 고무풍선,

고무풍선처럼 바람이 부는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혁명적신조였다.

이런 숭고한 애국을 천품으로 지닌분이시였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을 쳐다보는것을 엄격히 경계하시였으며 자기의것이 아닌것을 철저히 경멸하시였다.

한때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우리의 뜨락또르가 중량이 무겁다느니, 속도가 뜨다느니 하면서 그것을 집어던지고 다른 나라에서 설계를 들여다 새 뜨락또르를 생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있었다.

다른 나라를 쳐다보다나니 우점은 안보이고 《결함》만 보였던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자체로 만든 뜨락또르의 우점을 하나하나 분석해주시였다.

우리 나라와 같이 논갈이도 하고 밭갈이도 하며 련결차도 끌어야 하는데서 뜨락또르는 응당 중량이 있어야 한다, 뜨락또르는 먼거리를 다니면서 짐을 실어나르는것이 아니라 밭갈이나 논갈이, 써레질같은것을 하기때문에 속도가 문제로 되지 않는다.

우리 수령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문제는 단순히 뜨락또르의 기술일면만이 아니였다.

자기의것에 발을 튼튼히 붙이지 못하고 들떠돌아간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자기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 자기의것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정신이 부족하기때문이다,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것만 좋아하고 쳐다보는것은 주체성이 없는 표현이다!

애국애민의 사상이 맥맥히 흐르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는 일군들의 뇌리에 큰 충격을 주었다.

언제인가 우리 수령님께서 자본주의나라에서 온 대표단을 만나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담화가 끝나자 대표단비서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석님께서 피우시는 담배가 어느 나라의것인가고 문의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피우시던 담배를 들어보이시며 우리 나라 담배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시였다.

그러자 그는 만약 조선에 담배가 없으면 주석님께서는 어느 나라 담배를 피우시겠는가고 다시 문의하였다.

우리 나라에 담배가 없을수 없다, 설사 우리 나라에 담배가 없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되는것이지 무엇때문에 다른 나라의 담배를 얻어다 피우겠는가, 우리 나라 속담에 량반은 얼어죽어도 겨불은 안쬔다는 말이 있다!

약속이나 한듯 박수갈채가 장내에 요란히 울리였다.

이 투철한 혁명적신념으로 우리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전기간 절대로 남을 쳐다보지 않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시였다.

놀라운 소식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온 나라를 흥성거리게 하던 1950년대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뜨락또르를 만드는 나라가 불과 10여개밖에 안되던 때 우리의 로동계급이 분해한 부속품들을 멍석우에 펴놓고 빈약한 설비를 밑천으로 뜨락또르를 만든 기적적인 해였다. 단 30여일만에 우리 나라가 뜨락또르생산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서지 않았던가.

첫 자동차도 우리는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만들었다.

뚜드려서라도 꼭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자주신념이 기술과 자재, 시간을 낳았던것이다. 40여일간의 격전속에 창조한 우리의 자랑이였다.

위대한 력사가 있어 위대한 계승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는 곧 우리 수령님의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계승한 위대한 력사이다.

극도로 격화되는 세계정치정세로 하여 나라의 정세가 팽팽해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엄중한 난관이 초래되던 때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오늘도 우리 심장의 피를 높뛰게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전략적구호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것은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도 남의 본을 따고 남의 뒤를 따르거나 남의 덕에 살아온것이 아니라 우리 식대로 살아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한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긍지인 서해갑문은 우리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가 과연 어떤 기적을 낳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도이다.

우리는 대자연과의 싸움에서도 주체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할것이다!

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단 5년만에 갑문을 완공한 우리 조국이다.

수수천년 바다로만 흐르던 대동강이 흐름을 멈추고 대인공호수로 전변되던 력사의 순간, 아득한 옛날부터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있던 남포와 은률이 련결되던 그 격동적인 순간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창조물인 검덕의 제3선광장, 룡성의 새 기적인 1만t프레스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런 불굴의 신념으로 일떠세우고 만들어내지 않았던가.

주체성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투쟁은 곧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지배예속하려는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지배와 예속의 수법이 달라질뿐 그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에 대처하는 최선의 길은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원히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애국의 길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늘 자부에 넘쳐 강조하시였다.

조선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총명하기때문에 좋은것을 많이 발명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만 한 좋은것이 많다, 우리는 조선민족이 가장 총명하고 문명한 민족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애국과 매국을 판가름하던 1990년대초에 하신 우리 수령님의 교시가 오늘도 우리의 천만군민을 애국의 길로 과감히 추동하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던 엄혹한 시기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고있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마치도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이행》인듯이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주체의 기치를 내리우게 하려고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울린 어버이수령님의 선언이 적들을 기절초풍케 하고 기를 꺾어놓았다.

놀랄것 없다, 적들이 우리를 어쩔수 없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일제의 100만관동군이 포위진을 치고 우리를 창해일속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지켜냈는데 지금이야 땅도 있고 당과 국가와 군대가 다 있는데 걱정할것이 없다,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끄떡없다!

당시 일본주재 미국대사가 쓴 글을 돌이켜보자.

—어떤 사람들은 동유럽바람이 조만간에 북조선에도 들어올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를 자기 식으로 건설하여놓았다. 그러니 거기에는 다른 바람이 들어갈수 있는 틈이 없다. …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교시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자.

애국은 주체이고 주체는 애국이다!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이 바로 조국애이며 주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남기신 유산중 가장 위대한 유산인 주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창조와 기적의 력사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고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다.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길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맞서 승리하는 길이며 주체성을 고수발전시키는 길이다.

남의 처방이 자기에게도 다 맞는것은 아니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피의 교훈은 결코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제 옷을 줴버리고 맞지도 않는 남의 옷을 입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었기때문이다.

세계도처를 돌아치며 제국주의자들이 내흔들고있는 《처방》이라는것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발전을 위한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족적화해를 도모할수 있는 《묘안》도 아니다. 순수 저들을 분칠하고 어부지리를 얻기 위한 술책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높은 자존심으로 충만된 사람은 강자, 승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약자, 패자가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들고다니는 《처방》보따리를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기개로 불살라버려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유산인 애국을 련면히 계승하고 더욱 빛내이는 탁월한 정치이다.

세계에 어떤 바람이 불건, 세계라는 마차가 어떤 길로 질주하건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령도하여오신 주체의 궤도에서 0.001㎜도 탈선하지 않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비상히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주체의 혈통을 빛내여나가는 혁명의 참모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로 하여 사람도 산천도 젊어지고 혁신과 전진의 기상으로 약동하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할 말을 당당히 하고 간섭과 예속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 우리의 선군정치, 날로 그 무진막강함을 시위하는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공업,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마냥 타번지는 애국의 열풍…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치는 군인건설자들도, 당의 숨결을 안고 기대와 포전을 지키는 애국의 심장들도 하루생활의 첫 일과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기는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수령님들의 교시를 자로 하여 하루일과를 총화하고 래일의 새 작전을 짜는 천만군민의 결의와 맹세로 하여 더욱 숭엄히 흐르는 우리 조국의 숨결이 아니던가.

당에서 벽을 울리면 온 나라가 떨쳐일어나 강산을 들었다놓는 령도자와 인민의 불패의 일심단결은 이 땅에 승리와 앙양을 안아오는 결정적담보이다.

걸출한 정치가로 만민의 열화같은 칭송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은 주체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 자주로 존엄높은 우리 인민과 더불어 영생하시며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은 날로 더 광휘롭게 꽃펴날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제해설

《우리 당의 사상진지는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편성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명제는 우리 당사상전선에서의 전투서렬편성과 기본전투형식을 밝힌 고귀한 지침이다.

혁명은 공격전이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고 언제나 공격 또 공격해나가는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것이다. 이 전략전술을 틀어쥐고 최후승리를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해서는 사상진지가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편성되여야 한다.

우리 당사상진지는 교양, 강연, 선동망들과 출판보도, 문학예술을 비롯한 당사상전선의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로 이루어져있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상교양사업도 진공적으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도 화선식으로,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쓸어버리는 투쟁도 전격적으로 벌릴수 있도록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이 전개될 때 사상진지가 공격형으로 편성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면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사상진지가 왜 공격형으로 편성되여야 하는가.

그것은 우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상사업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해서이다.

집중포화는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중요한 요구이다. 력량과 수단이 분산되여 피동적인 방어에만 매달리면 집중공세를 들이댈수 없다. 민활한 기동성과 드센 집중력은 즉시에 공격에로 이행할수 있는 화력진지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사상진지를 공격형으로 편성하여야 새롭게 제시되는 당정책들을 교양, 강연, 선동망들과 출판보도수단들을 통하여 중앙의 일군들로부터 심심산골의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신속히 알려줄수 있으며 그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지금 과학기술전당건설장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는 사상전의 된바람이 일고있다. 이곳에서는 방송선전, 직관선동, 예술선동 등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들이 총동원되고 모든 사상사업이 기동성있게 집중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사상전의 집중포화는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날에 날마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는 현실은 사상진지를 공격형으로 편성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당의 목소리가 잠시도 중단없이 울리게 하여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이 우리 내부에 발붙일수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낡은것이 쌓이지 않게 쉬임없이 밀어내야 정결해진다는 뜻이다. 사상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낡은 사상잔재는 매우 보수적이며 틈만 있으면 되살아난다.

사상사업에서의 방어적인 태도, 일시적인 중단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공백이 생기게 하며 그 순간부터 낡은 사상이 침습하게 된다. 공격 또 공격, 바로 이것이 당사상사업의 생리이고 본도이다.

지난날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다. 우리는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이 내부에 발붙일수 없게 사상사업을 잠시도 중단없이,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벌려야 한다. 비행장에 눈이 올 때 방사제설기로 활주로에 눈이 쌓이지 못하게 날려보내는것과 마찬가지로 사상전의 련속포화로 온갖 이색적인것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

사상사업을 오분열도식, 행사식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 사람들이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당의 사상을 체득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적들의 기를 꺾어놓는 단수높고 끊임없는 대적언론전과 전파전, 원쑤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사상의 미싸일들의 련속발사는 사상진지가 공격형으로 편성되고 사상사업이 전격적으로 벌어질 때 이루어질수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사상전의 과녁을 바로 정하고 명중포화를 들이대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특성, 사상동향에 기초하여 사상전의 과녁을 바로 정하는것은 사상사업의 성과를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람의 속을 모르고서는 사람을 움직일수 없다. 열길 물속은 몰라도 한길 사람속은 알아야 하는것이 당사상일군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사람과의 사업은 어머니가 갈은 피줄을 타고난 자식이지만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막내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것처럼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대중을 잘 알고 사상전의 과녁을 바로 정하자면 사상의 무기를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공격형의 사상진지를 차지한 당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군중과 동떨어져 사무실에서 맴돌거나 아래에 내려가는 수자나 채우는 형식주의가 추호도 있어서는 안된다. 매 사람의 머리속을 손금보듯이 들여다보며 만명의 종업원이면 만가지 처방을 가지고 차분하고 실속있게 사업하는 사상전의 명사수,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두메산골의 마지막 한사람까지도 당의 뜻으로 심장이 불타도록 하는 화선형의 일군들이 당사상전선을 지켜서있을 때 사상진지가 공격형으로 편성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강력한 사상공세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전국을 일시에 들었다놓을수 있는 강력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제에 깃들어있는 심오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나가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성 룡

박 봉 주 총 리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개건정형 현지료해

【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개건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 건설자들은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할 일념밑에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총리는 개건공사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인민군대 식료공장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할데 대하여서와 공사의 질과 함께 련관단위들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총리는 또한 대안친선유리공장 남포유리그릇분공장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군사상의 신봉자들로

연탄군 중소형발전소 운영 및 건설대 당조직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본질과 내용,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더욱 깊이 인식시켜 그들을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선군정치의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로 준비시키고있다.

얼마전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정치방식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었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있기에 우리 조국이 필승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룡 식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백두대지에 울려퍼진 위대한 애국의 호소

백두대지에 선군령장의 애국의 호소가 높이 울려퍼졌다.

언땅이 채 녹지 않은 북방의 찬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멀고 험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찬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발전소건설장이 장엄하게 굽어보이는 전망대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오느라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다고, 발전소건설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외국방문을 마치신 길로 불편하신 몸이였지만 이런 산세험한 곳까지 찾아오시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저려온다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걸을수록 정말로 우리 장군님같으신분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갈마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실 때 돌격대지휘성원들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끓어번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최고사령관의 별동대인 우리 청년들을 믿습니다. 청년들을 믿기에 그들에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맡기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훌륭하게 건설하고야말것입니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주체99(2010)년 5월 외국방문을 마치신 길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우리 장군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이 사나운 눈보라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엄혹한 자연환경과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방대한 발전소건설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낼 결심을 안고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데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일군들은 바로 그날의 영광을 다시금 맞이한것만 같아 울렁이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이며 조국의 만년재부인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자는것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유산, 사랑의 젖줄기!

참으로 의미깊은 말씀이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굳게 믿으시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소이름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로, 돌격대를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로 명명해주시였고 선군혁명령도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발전소건설과 관련한 백수십차의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솜옷을 실은 사랑의 특별비행기까지 띄워주시였다.

정녕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 조국의 더 밝은 래일을 위해 남기신 애국의 유산이고 청년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강성국가의 주인공으로 억세게 키워주신 사랑의 젖줄기인것이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나깨나 원수님만을 그리는 청년돌격대원들의 간절한 마음과 삼지연의 황홀한 불야경을 담은 소묘작품들이 있는 직관선전판앞에 다가서시였다. 그 많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얼마나 전투적이고 훌륭한가, 모든 직관물마다에 당의 사상과 청년들의 투쟁정신이 그대로 비껴있다고, 모든 단위들이 여기에 와서 배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주신 발전소건설장 그 어디에나 감동깊게 새겨져있다.

1호발전기실에 들리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건설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볼수 있었다고, 자신께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발전소건설장에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얼음장덮인 서두수우에 거연히 솟은 1호발전소언제를 가리키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세운 조선청년들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백두대지에 메아리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이고 믿음이며 그들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리게 하는 거대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받은 온 건설장이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다.

인민군대의 강력한 력량을 파견해주시겠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받아안은 돌격대원들은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고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을 따라배워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폭풍쳐 내달릴 충천한 기세에 넘쳐있다.

크나큰 그 사랑, 그 믿음에 떠받들려 1호발전소언제가 하늘높이 치솟아오르고 2호발전소 물길굴이 완공의 날을 눈앞에 두고있다.

청년들은 책을 가까이해야 한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일떠선 정양소에도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서실을 보시면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를 비롯한 중요대상공사들에 동원된 청년들의 교양에 필요한 도서들을 많이 찍어 내려보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쉴참에도 책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청년들이 책을 가까이하면 나라의 진보가 앞당겨지고 청년들이 책을 멀리하면 나라의 전진이 떠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쉴참에도 책을 놓지 않는 버릇을 붙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날의 가르치심은 우리 일군들이 새것에 민감하고 다정다감한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깨우쳐주신 참으로 의미깊은 말씀이였다.

우리 청년들이 다르다

1호발전기실로 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청춘다리를 지나 문득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길가녘에 비닐박막을 씌운 양묘장이 눈에 띄우시였던것이다.

양묘장한쪽에는 려단별 산림조성전망도와 양묘장 조성정형, 북부고산지대에서 나무모를 자래우는 방법을 소개한 게시판이 있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에서 청년양묘장을 꾸리고 나무심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집행해나가고있는것이 좋다고, 당정책관철전에 청년들이 앞장에 서니 큰 힘이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산세험한 여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불리한 북방의 기후조건에서 산림조성전망계획을 세우고 새 품종의 나무모를 심은 청년돌격대원들이 더없이 기특하시여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르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은정에 목이 메여 일군들은 가슴뜨거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 귀중한 가르치심, 값높은 평가 =

우리의 대답은 하나 결사관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1호, 2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새 세기의 창조자로서 조선속도를 창조하는데서 한뚝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우리는 발전소건설을 당창건 일흔돐까지 다그쳐 끝내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현장련합지휘부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당창건 일흔돐까지 1호, 2호발전소건설을 완공하는데서 현장련합지휘부일군들이 맡은 임무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생각한다.

참모장 김명룡: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과 혁명전적지들이 있는 량강도의 인민생활과 경제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공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8월말까지는 1호발전소 콩크리트언제타입과 2호발전소 물길굴건설을 기본적으로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해야 할 작업량은 참으로 방대하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인민군대의 강력한 력량과의 군민협동작전으로 발전소건설이 기한전에 완공되리라는것은 확정적이다.

시공부참모장 배영근: 우리는 현장조건에 맞게 선행공정과 준비공정에 대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여 모든 공정들이 련속공정으로 맞물려 진행되게 함으로써 매일 천수백㎥의 콩크리트타입을 질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콩크리트혼합물생산과 운반, 다짐, 휘틀조립과 물보장, 진동봉준비, 야간조명설치에 이르기까지 월, 주별공사계획과 단계별공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

라남수력발전소 시공조직설계연구소 실장 홍정민: 우리 현장설계실의 설계가, 연구사들앞에는 언제타입을 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콩크리트언제타입을 위한 시공조직안을 며칠안으로 기어이 완성하겠다. 또한 언제타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겠다.

그리고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발전소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적극 담보해나가겠다.

기자: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서 사회주의경쟁이 중요하지 않은가?

경쟁분과장 리철: 옳은 말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가겠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각 도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는 강력한 수송수단을 현지에 보내여 수송경쟁을 치렬하게 벌리고있다. 대상공사를 맡은 각 려단별사회주의경쟁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당창건 일흔돐까지 기어이 백두대지에서 발전소완공의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도록 하겠다.

참모장 김명룡: 앞으로 공사기일은 다섯달, 날자로는 1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몸소 건설장을 찾아주시여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이며 조국의 만년재부인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자는것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이 우리들의 심장을 결사의 맹세로 높뛰게 하고있다. 우리 모든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발전소건설을 기한전에 끝냄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중시사상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청년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혼합공장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는 전투장에서 우리는 현장련합지휘부의 김달수동무를 만났다.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우리 청년들의 위훈을 높이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되새길 때마다 저는 흥분된 심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청년강국, 얼마나 뜻이 깊은 말씀입니까.》

그의 얼굴에 추억의 빛이 어렸다. 올해 나이가 63살, 이 발전소건설장의 로병으로 존경받고있는 그는 18살의 청춘시절에 이천—세포사이 새 철도건설에 참가하여 온 나라에 소문을 냈었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나라의 동서부를 련결하는 철도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이천—세포사이 새 철도를 1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하기 위한 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장에서 혁신자로 이름떨친 김달수동무는 주체61(1972)년 3월 20일 몸소 공사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뵈옵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였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이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당이 위대하기에 우리 청년들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자랑떨칠수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서리 내린 오늘도 청년돌격대원들과 어깨나란히 발전소건설에 헌신하고있는 김달수동무의 이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하였다.

청춘들의 힘찬 발구름과 우렁찬 노래속에 전진하여온 우리 조국의 력사에는 청년들의 위훈의 자욱이 무수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한별만세를 부르며 조선혁명을 개척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의 격전장에 청춘의 더운 피를 뿌리며 조국해방을 안아온 항일혁명선렬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리수복영웅을 비롯한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의 삶은 얼마나 값높고 빛나는것이였던가. 당의 부름을 심장으로 받들고 산으로, 바다로, 새 개발지로 달려나간 천리마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서 불굴의 기상을 높이 떨친 선군시대 청년들…

청년들이 강하면 우리 당이 강화되고 조국이 굳건하며 미래가 창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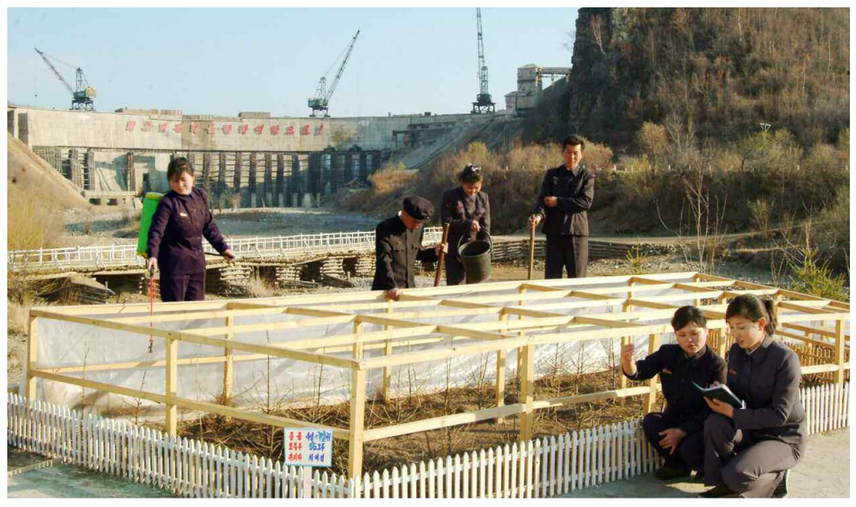
청년강국이라는 시대어가 새로 태여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내 조국의 존엄과 위용이 더욱 빛나게 되였다.

위대한 우리 조국을 세상이 보란듯이 청년강국으로 높이 떠올리신 경애하는 원수님,

희세의 정치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젊음이 약동하는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년중시사상과 더불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청년강국으로 존엄과 위용을 떨치고있다.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주체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영원한 청춘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릴것이다.

= 수 필 =

청년강국에 대한 생각



228만 4천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비닐박막을 씌운 양묘장에 심은 어린 나무모들에서 파릇이 새싹이 움트고있다.

한그루한그루의 애어린 나무모들에서 이 땅의 나무 한그루도 가슴에 소중히 품어안고 푸른 숲펼쳐질 조국의 래일을 가꾸어가는 청춘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후덥게 느낄수 있다.

이 땅에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치려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청년돌격대원들은 건설의 드바쁜 속에서도 좋은 품종의 나무모들을 구해다가 양묘장에 심고는 찬바람휘몰아치는 북방의 날씨조건에서도 비닐박막으로 온도보장을 하며 애지중지 키웠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이렇게 애국의 량심과 진실한 땀을 바쳐가며 건설장주변의 산발들에 무려 228만 4천여그루의 나무들을 심었다. 뿐만아니라 아직도 건설전투의 흔적이 남아있는 산발들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함경남도려단을 비롯한 많은 려단들에서 자체의 양묘장을 꾸리고 나무모를 정성껏 키워가고있다.

정녕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은 우리 청년들을 정신육체적으로 튼튼히 단련시키는 거창한 건설전투장이기 전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당과 조국을 알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지닌 강성국가의 미더운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워가는 또 하나의 혁명의 학교가 아니랴.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강사나 선동원은 실지로 학습을 조직운영하고 강연이나 선동에 출연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동원하여야 할 초급선전일군입니다.》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실력과 능동적인 강의활동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는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황해북도고려약생산관리국 신문주필 윤영호동무

《불같은 사람》, 《열정가》!

지난 25년간 학습강사로 사업하면서 절세위인들의 감사를 두차례나 받아안은 윤영호동무를 황해북도고려약생산관리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렇게 부르고있다.

신문주필인 그는 관리국 초급직맹위원장, 학습강사 등을 겸하고있다. 그처럼 많은 일을 맡아하면서도 그는 언제 한번 힘든 기색을 몰랐다.

사업의 모든 공간을 그는 학습강사로서의 실력의 탑을 더 높이 쌓아올리고 강의의 실효를 최대로 보장하기 위한데로 지향시켜나갔다.

그 어떤 강의든지 관리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하여, 학습반성원들의 혁명실천을 힘껏 추동할수 있게!

윤영호동무는 학습강사활동을 벌리는 전기간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현실료해, 실태파악에 특별한 품을 들이군 하였다.

인민군대의 투쟁기풍, 창조본때를 적극 따라배울데 대한 학습제강이 나왔을 때였다.

그는 제강의 내용에 근거하여 관리국안의 실태를 따져보았다.

성과가 있는 반면에 부족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전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고 하여 일군들이 고려약공장들에 애써 갖추어놓은 추출농축설비들을 가동시킬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도 승호고려약공장에서만은 고려약엑스생산을 쨍쨍 내밀고있었다.

그는 지체없이 이 공장으로 달려갔다. 그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만나 료해하는 과정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 창조본때를 본받아 이룩한 귀중한 싹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윤영호동무는 그 사실을 강의에 반영하였다.

청강자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일군들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떨쳐나섰다. 결과 도안의 고려약공장들에서는 짧은 기간에 전기사정에 구애됨이 없이 자체의 지방연료에 의거하여 추출농축설비들을 돌릴수 있는 생산체계를 확립하게 되였으며 고려약엑스생산을 정상화해나가게 되였다.

강의에서의 생동한 현실결부, 실천결부를 위하여 그가 기울인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하자면 끝이 없다.

황해북도고려약생산관리국이 지난 20여년간 인민경제계획을 훌륭히 수행하고 두해전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성과속에는 학습강사 윤영호동무의 땀이 진하게 슴배여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함흥철도국 수송지휘처 사령원 리남수동무

졸던 사람도 깨우는 강의, 들을수록 재미있어 기다려지게 되는 강의!

이것은 함흥철도국 수송지휘처 사령원 리남수동무의 강의에 대한 대중의 평가이다.

비결은 무엇인가.

《학습강사사업을 갓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제딴에는 밤을 새워가며 강의준비를 품들여 하고 연단에 나섰는데 강의가 끝날무렵 일부 청강자들의 얼굴에 지루감을 느끼는 표정이 비꼈습니다.》

리남수동무의 이야기였다.

청강생들이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는것은 강사가 그들의 심리에 맞게 강의를 잘하지 못하였기때문이라고 자기자신을 채찍질한 그는 강의와 현실을 하나로 결부시키기 위한데 힘을 넣었다.

그는 늘 학습제강을 《밥》에 비유하여 말하군 한다. 대중의 심장속에 당정책을 심어주는 교과서, 학습제강이야말로 사상정신적량식이기에!

어떻게 하면 청강자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자기의것으로 100% 소화하게 할수 있겠는가.

이것이 25년간 학습강사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가 늘 고심해온 문제이다.

그의 청강생들중에는 각이한 분야의 사령원들이 다 있다.

그들에게 하나를 가르치자면 열백을 알아야 한다는것이 리남수동무의 주장이다.

그는 무서운 정열가, 독학가이다. 도서관의 열성독자들중 1번수가 리남수동무이다. 국제정세로부터 시작하여 인민경제부문별실태에 이르기까지 그가 파고들지 않은 분야란 없다.

리남수동무의 강의에서 특징은 두번 반복해설하는 방식으로 대중이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게 하는것이다.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해설강의의 방법이 바로 그렇다. 처음에는 로작의 기본사상과 체계를 개괄하여 통속적으로 해설해준다. 다음 로작의 매 문구, 단어들의 의미를 새겨주며 강의를 심도있게 한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해설강의때를 실례로 들수 있다. 로작의 진수를 새겨준 그는 체계별내용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축산이라는 단어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적인 축산업발전실태, 그 전망을 로작의 기본내용에 준하여 폭넓게 해설하였는데 그것이 대중에게 준 여운은 대단히 컸다.

리남수동무는 철도국의 기술학습강사, 강연강사이기도 하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국안의 구간별로반상태와 역들의 기술상태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직관물을 만들어 사령실마다 내붙임으로써 사령원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철도국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찾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되였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여러가지 질문을 해도 리남수동무는 막힘없이 대답해준다. 자기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할 때마다 그는 당초급선전일군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며 분발하군 한다.

본사기자 김향란

단천제련소 조액1직장 탈동작업반 김한구동무

단천제련소 조액1직장 탈동작업반 김한구동무는 28년간 학습강사로, 당세포비서로 사업하고있다.

그는 조액공으로서 자기 맡은 일에 헌신하면서도 짬시간을 리용하여 강의를 통속적으로, 알기쉽게 하기 위해 자료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그에게는 수십권에 달하는 자료집이 있다. 거기에는 위대성교양자료, 김정일애국주의교양자료,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자료들과 상식, 성구, 속담자료들이 있다. 그가 발취해놓은 자료들은 수천건이나 된다.

김한구동무는 학습제강을 받으면 여러번 읽어보면서 환히 헤아려보며 강의를 이야기식으로, 통속적으로 한다.

그가 이처럼 강의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상의 준비정도와 심리에 맞게 구수하고 재미있게 하기때문에 작업반성원들은 누구나 학습날을 기다리고있다.

김한구동무는 학습이 실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고 혁명과업수행에 이바지하는 학습으로 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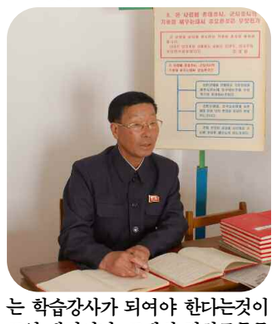
실례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관련한 학습을 한다면 설비관리, 나무심기와 관련한 참고자료, 상식자료를 준비하여 귀에 쏙쏙 들어가게 강의를 진행하고있다. 그리고 실천적모범으로 작업반원들이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탈동작업반원들이 뽐프를 직렬식으로 배치하여 거르기문제를 해결한것, 교반기의 완전밀폐로 거르기액의 온도를 보장한것 등 3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현장에 도입하게 된 비결의 하나는 이처럼 김한구동무가 학습과 혁명실천을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한데 있다.

김한구동무는 학습강사로 사업하는 기간 도적인 학습강사경연에 여러차례 참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는 오늘도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가는데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꿰들고 그에 맞는 참고자료들, 상식자료들을 리용하여 강의준비를 착실히 하군 한다.

학습강사는 대중과 호흡할줄 아는 학습강사가 되여야 한다는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 김한구동무는 대중의 눈빛, 속생각, 감정까지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은 인재육성의 튼튼한 밑거름

이들처럼 자기 단위의 교육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자

형제산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형제산구역에서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학교, 유치원건설과 개건보수,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어디에 가보아도 제일먼저 눈에 띄는 건물들이 바로 새로 건설되거나 꾸려진 학교, 유치원들이다.

멋있고 환한 배움터, 훌륭한 보금자리마다에 우리 학교, 우리 유치원에 대한 자랑과 긍지가 차넘치고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여기에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는 구역일군들의 헌신적인 땀과 노력이 슴배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상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며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몇해전이였다.

형제산구역 학산고급중학교건설장을 돌아보는 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여러해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공사가 아직 건물의 기초단계에 머물러있었기때문이였다. 낡은 교사를 헐면서 공사기간 수업을 보장할수 있게 남겨둔 단층건물에서는 학생들이 불편하게 공부하고있었다.

일군들의 눈길은 건설장에서 바라보이는 애국렬사릉에로 옮겨졌다.

렬사들이 무엇을 위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참된 한생을 바쳤던가. 결국 미래를 위한 헌신이 아니였던가.

조국의 래일을 위해 심장을 불태우던 렬사들이 이렇게 웨치고있는듯싶었다.

후대들을 위한 일에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라!

얼마후 구역안의 일군들이 모인 가운데 학교건설을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놓고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구역에서 벌려놓은 건설대상이 많은 조건에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일군들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때로는 밤잠도 잊고 뛰여다니며 일하고 있는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가 아닌가. 아무리 어려운것이 많아도 새 세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낌없이 돌려주는것이 우리 당의 후대사랑이다. 우리가 주인구실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후대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훌륭한 교실에서 부러운것없이 공부했다고 추억할수 있게 하자.

이런 불같은 마음을 안고 일군들은 학교건설을 위한 조직사업과 분공을 짜고들었다.

학교건설지휘부가 조직되고 형제산구역도시건설대가 학교건설에 전적으로 동원되게 되였다.

이때부터 학교건설이 구역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였고 구역안의 기관, 기업소들, 후원단체들이 모두 발동되였다. 일군들이 먼저 걸은 출장길도 학교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보장을 위한 길이였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로 먼저 들려보는 대상도 학교건설장이였다.

그리하여 1년 남짓한 기간에 3층짜리로 된 덩지큰 학교건물이 번듯하게 일떠섰다. 외벽이 색타일로 환하게 장식된 학교를 보며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들도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일군들은 또다시 학교에 수영장도 손색없이 꾸려주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학산고급중학교건설을 통하여 구역안의 일군들속에서는 교육사업을 우선시하는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우리 당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형제산구역 약수소학교는 물론 하당소학교, 상당1유치원의 증축공사가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다그쳐진것도 이렇게 후대들을 위한 일을 한시도 미룰수 없는 사업으로 여기며 주인이 되여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온 구역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교육사업을 우선시하는 기풍, 주인으로서의 창조적인 사업태도는 응당한 성과를 안아오기마련이였다.

이곳 일군들이 교육사업을 밀어주는데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이 있다.

앞날의 기둥감들인 새 세대들을 위한 일에서는 언제나 래일을 내다보며 작전해야 하며 모든것이 손색이 없어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이다.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깃든 형제산구역 신미고급중학교의 새 교사를 지을 때였다.

학교에는 단층으로 된 교사도 있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여서 습기 등으로 관리운영에 지장을 받고있었다. 그리하여 구역에서는 이 건물자리에 새 교사를 지어주기로 하였다.

교육사업과 관련한 일에서는 사소한 지장도 없어야 하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것이 일군들의 확고한 관점이였다.

그리하여 이 학교의 새 교사건설이 또다시 구역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였다.

교사를 건설하는 과정에 자재들이 어방없이 모자랐다. 기초건설단계에서는 물론 매 방마다 품을 들여야 할 곳이 많았기때문이였다.

세멘트가 더 요구된다는것을 알게 된 구역일군들은 자재보장을 위한 사업을 다시 조직하고 직접 출장길에 나섰다. 학산고급중학교건설때에도 그렇게 앞장에 서서 새로 제기되는 자재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던 일군들이였다.

후대들을 위한 일을 보람으로 여기며 그 어떤 어려운 짐도 스스로 걸머지는 일군들의 모습에서 후대관을 받드는 일군의 자세와 일본새란 무엇인가를 가슴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더 멋있게 훌륭히 꾸려주자.

일군들도 건설자들도 이렇게 학부형이 된 심정에서 공사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품을 넣어가며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새 교사가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때였다.

학교에 내려온 한 일군에게 그간 건설정형을 보고하면서 건설자들은 그만하면 손색없이 꾸려지게 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만족해하는 그들을 보며 그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직 만족할수 없소. 평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공부하게 될 학생들이 해야 하오.》

그리고는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따져보고 새 과제들도 지적해주었다.

군민이 힘을 합쳐 형제산구역 중당유치원을 일떠세울 때에도 구역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건설을 밀고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경상유치원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내외부를 훌륭하게 꾸리는데 성의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교양실들과 지능놀이실, 자연관찰실, 물놀이장, 식사실 등을 갖추고 복도와 홀마다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소년장수》, 《다람이와 고슴도치》 등 여러 아동영화와 세계명작동화집의 그림들이 그려져 어린이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 유치원은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형제산구역 약수소학교의 교육현대화를 위한 사업에서도 일군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준을 높이 세웠다. 이렇게 되여 제일 좋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최근 형제산구역의 교육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새세기 교육혁명의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일군들이며 사회주의교육강국건설에서도 앞채는 일군들이 메야 한다는것을 의미깊게 시사해주고있다.

교육자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을 받드는 일군의 자세와 일본새란 무엇인가를 가슴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새로 훌륭히 일떠선 중당유치원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공로혁

학교가 자랑하는 《우리 후원단체》

신의주시직관선전사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것만큼 그들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해 12월초 배치되여온지 얼마 안되는 신의주시 관문초급중학교 교장 리영희동무에게 문득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자기 기관이 이 학교의 후원단체인데 도와줄것이 없겠는가고 묻는것이였다.

교장과 함께 학교를 돌아보는 시직관선전사 당세포비서인 조귀남동무의 발걸음은 매 층의 복도들에서 자주 멈춰서군 하였다. 복도벽마다에 만들어놓은 직관물들이 여러차례 수복한것들이였다.

그는 먼저 새 직관물들부터 마련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으나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 많은것을 다 해주자면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것이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학교로 오게 된 사연이 떠올랐다.

지난 시기에도 시직관선전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해마다 이곳 관문초급중학교에 콤퓨터, 록화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자들을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크나큰 격정속에 접하고 깊은 자책에 잠겼다. 작은 기관에서 후원사업을 그만큼 하는것도 큰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이 심각히 돌이켜져서였다. …

이런 생각에 잠겼던 그는 교장에게 학교의 모든 직관물들을 자기들이 맡아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조귀남동무는 기관일군인 배경일동무와 자리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학교에 있는 직관물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미리 새것으로 마련해주지 못했는가 하는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이 많이 들지만 도와줍시다. 이제 우리가 마련해준 직관물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찬성입니다.》

얼마후 그들은 학교에서 필요되는 직관물들의 내용과 크기를 다 알아가지고 돌아갔다.

그후 이들은 휴식도 미루어가며 직관물제작전투에 달라붙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였다. 하나하나의 직관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집체적토의를 거듭 진행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번씩 재작업을 하면서 완성해나갔다.

올해 1월과 2월에 걸쳐 수십개의 직관물들을 다 제작해가지고 찾아온 그들은 연혁소개판도 해주겠다고 또다시 자진해나섰다.

올해중으로 자기 기관을 더욱 보란듯이 꾸리려고 마련하였던 자재를 돌려 학교의 연혁소개판을 완전무결하게 갖추어주기로 토론하였던것이다.

우리에게 교장 리영희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시직관선전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자그마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를 도와 정말 큰일을 해주고있습니다. 시안의 교육일군들이 우리 후원단체를 부러워할 때마다 저는 그들에 대한 자랑을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소박한 말이였지만 가슴을 쿵하고 울려주었다. 큰 단위라고 하여 교육지원사업에서 큰 자욱을 남기는것이 아니다.

비록 작은 단위라 할지라도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교육중시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려는 참된 인간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교육사업이 조국의 흥망을 좌우하는 제일중대사로 소중히 자리잡게 되는 법이며 또 미래를 사랑하는 이런 단위들의 일이 잘되여나가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귀결인것이다.

이들과 같이 《우리 후원단체》라고 정답게, 자랑스럽게 불리우는 단위들이 많을수록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려는 당의 웅대한 구상이 실현될 그날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미더운 학부형들

지난 3월말 새 학년도 개학날을 앞두고 **사리원시 선정고급중학교**에 리당일군들과 관리위원회일군들, 작업반장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학교를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를 리용하여 진행하는 수업참관도 하면서 새 학년도 개교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올해에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개건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 모든 교실들이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춘 다기능화된 교실들로 손색없이 꾸려졌다.

이렇게 학교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일신되게 된데는 리안의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었다.

후대들을 위한 일에 언제나 만족을 모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빈틈이 있을세라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돌리고 적극 도와나서는 일군들의 모습에서 교원들은 뜨거운것을 금할수 없었다.

교장 정춘희동무는 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학교를 통이 크게 도와주는 리안의 일군들은 정말 미더운 학부형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학교일이라면 발벗고나서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모습에서 우리 교원들모두가 자기 자식들을 맡긴 학부형들의 뜨거운 진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후대들을 앞날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키우는데 열정을 다 바쳐갈 결의가 더욱 굳어집니다.》

어찌 이 학교만이랴.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고 온 나라가 학부형이 되여 교육사업을 도와주고 떠밀어주는 이런 훌륭한 사회적기풍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더욱 굳건해지는것이다.

본사기자

실화 교복

《어머니, 새 교복을 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바람으로 환희에 넘쳐 웨치는 아들을 전미경은 얼싸안다싶이 반겨맞았다.

대학에 입학한 아들이 오늘 새 교복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던 미경이였다. 당과 국가의 은정이 깃든 새 교복을 입은 자식들의 환한 모습을 한시바삐 보고싶어하는 어머니들 누구나 다 그러하겠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유별했다.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실장인 그는 새 교복도안을 그린 창작가들중의 한사람이였던것이다.

《새 교복이 마음에 드니? 동무들도 다 좋아하더냐?》

새 교복을 입어 갑자기 더 의젓해지고 커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바라보면서 미경은 다우쳐물었다. 아들은 그 물음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마음에 꼭 들어요. 다들 좋아해요.》

아들의 새 교복을 어루쓸어보면서 미경은 혼자소리처럼 외웠다.

《방직공장에서랑 피복공장들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겠구나.》

《수고야 어머니가 더 컸지요. 이 교복을 위해 밤을 새운 도안가들도 있다는것을 아마 사람들은 다 모를거예요.》

아들의 얼굴에는 도안가인 어머니에 대한 자랑과 긍지가 한껏 어려있었다. 미경의 눈앞에는 오늘의 이 교복들을 위해 도안가들이 그린 수많은 도안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도안가들의 수고에 비할수 없는로고, 새 교복을 위해 도안가들보다 먼저 헌신의 발자욱을 찍고 도안가들이나 방직공장, 피복공장 로동자들보다 더 많은 밤을 지새운 당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것인가.

그 사연을 도안가 전미경은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 *

미경은 지금도 산업미술도안창작가들과 함께 새 교복도안창작을 위하여 출발선에 나섰던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는 소식이 온 나라 창작가들의 가슴에 감격의 열파를 몰아왔던 2012년 4월의 그날을 10여일 앞둔 때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학생들에게 앞으로 해입힐 교복에 대하여 연구해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미경의 가슴은 일찌기 느껴본적 없었던 창작적흥분으로 들끓었다. 새로운 교복도안, 그것은 원수님께서 산업미술도안가들에게 주신 첫 과업이였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는 아침에 보았던 《로동신문》의 글줄이 생생히 살아올랐다.

《…1989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후 최대규모의 상륙연습을 감행한것은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야망을 더욱 날날이 드러내고있다.》

마우스를 쥔 그의 손에 별안간 더욱 힘이 솟구쳤다.

(아무리 발광해봐라. 우린 아이들의 새 교복을 짓는다.)

길을 걷다가도, 지하전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문득 착상이 떠오르면 그는 거기에 몰두했다. 머리속에 수십가지로 떠오르는 교복형태를 열번, 백번 다시 그려보면서 한점한점의 도안을 창작해나가는 그의 사색은 단 하나 교복과만 이어져있었다. 그러나 키도 얼굴형태도 몸매도 서로 다른 온 나라 수백만 학생들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의 교복도안을 고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

어느날 미경은 산업미술부문의 일군들, 창작가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들어서게 되였다.

가슴이 높뛰였다. 벌써 몇번째인가. 이제는 출퇴근길처럼 몹시도 마음속에 가까와진 당중앙위원회 구내길이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토의될가.

교복도안창작협의회로 늘 스스럼없이 마주앉군 하던 낯익은 책임일군이 그들을 반겼다. 창작가들이 그에게서 받은것은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자료들이였다. 세계의 이름난 대학들과 학교들의 학생교복이 각양각색으로 펼쳐졌다. 나름대로 멋을 뽐내고 력사를 자랑하는 교복들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교복은 될수 있어도 온 나라 학생들의 교복은 아니였다. 아무리 부유함을 자랑해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을 지고 전국의 학생들에게 꼭같이 교복을 지어입히는 나라는 없었다.

(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얼마나 좋은가. 우리 당의 사랑은 얼마나 고마운가!)

미경은 우리 당, 우리 제도의 고마움에 대하여 그때처럼 절감한적은 없었다. 그도 나라에서 준 교복을 입고 자랐고 자식의 교복걱정을 해보지 못한 어머니였던것이다. 바로 며칠전에 다름아닌 이 방에서 울려나왔던 절절한 이야기가 그의 귀가에 들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도 교복도안이 어느 정도 되였는가 또 물으시였습니다.

창작가선생님들, 어떻게 하나 하루빨리 교복도안들을 완성해주십시오. 원수님께서 동무들의 도안을 기다리고계십니다!》

그것은 한 일군의 부탁이기 전에 어머니당의 목소리였고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우리 시대의 당부였다.

미경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넘쳐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나섰다.

당과 국가의 중대사를 론의하는 이 성스러운 곳에 우리같이 평범한 도안가들이 벌써 몇번이나 왔던가. 영광스러웠다.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졌다.

해방후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의 첫 정권이 토의할 첫 의정으로 내세워주신 연필문제처럼 오늘날 학생들의 교복문제는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 제일 첫자리에 있는 최대중대사였다. 이제 미경은 단순히 도안가가 아니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렬에 나선 척후병이였다.

불빛밝은 당중앙위원회청사를 이윽토록 바라보는 그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그 불빛은 마치도 자식에게 입힐 새 교복때문에 잠 못 드는 어머니의 사려깊은 눈빛같았다. 당중앙위원회청사는 멀어졌지만 그의 귀전에는 그냥 쟁쟁히 메아리쳐왔다.

《원수님께서 동무들의 도안을 기다리고계십니다!》

* *

4월 1일 개학날이 밝자마자 미경은 집을 나섰다. 아들이 입학한 대학으로가 아니라 소학교로 줄달음쳤다. 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싶었던것이다.

학생은 한명, 따라선 사람들은 온 가족… 온 거리에 즐거움과 환희의 웃음꽃을 피워놓은 신입생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글쎄 상점에서 공급할 때부터 매 아이마다 일일이 다 입혀보고 신겨보며 꼭 맞는 교복과 신발을 골라주지 않겠소. 콩꼬투리만한게 교복을 입으니 갑자기 어른이 된것 같수다.》

《한날한시에 새 교복을 세벌이나 받아안게 될줄이야. 우리 세쌍둥이들뿐이 아닌 이 많은 아이들을 다 이렇게 내세우려니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활짝 핀 꽃송이같은 신입생들이 꽉 들어찬 운동장을 감격에 겨워 둘러보는 미경의 눈앞에는 무려 수백점의 교복도안이 꽃바다처럼 전시되였던 당중앙위원회 회의실광경이 떠올랐다. 첫 현상응모심의가 진행된 그날은 3년전 5월이였다.

수백점으로부터 절반으로, 절반에서 또 절반으로, 다듬고 또 다듬고…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있었다. 새 교복도안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누구에게나 최대판심사였고 그 도안의 완성을 위해 짬시간도 통시간도 기꺼이 바치는 그들모두는 가장 엄격한 심사성원들이기도 하였다.

그때로부터 두달후 교종별, 남녀별로 창작한 여러점의 새 교복도안들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학교 남, 녀학생들의 교복도안은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창작한 안이 제일 좋다고 하신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미경의 가슴은 얼마나 행복으로 벅차올랐던가.

하지만 그날의 교복도안이 오늘의 교복으로 완성되기까지에는 헤아릴수없이 많은 품과 시간이 들어야 했다.

언제였던가. 이렇게 학생들을 찾아 학교마당에 들어섰던 그날은.

(바로 당에서 나를 떠밀어주었지.)

미경의 눈앞엔 서글서글하고 인정미가 넘치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 학교에 가보길 정말 잘했소.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형들에게 교복도안들을 보여주고 형태는 어느 형태가 좋고 색갈은 어느색이 좋습니까 했더니 모두 밝은색, 새로운 형태를 바라더구만. 동무도 한번 나가보오. 교복을 입을 주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지. 우리 원수님께서는 교복과 함께 안겨줄 신발의 바닥까지 손수 만져보시며 학생들이 느낄 작은 불편에 대해서까지 걱정해주시는데…》

눈굽이 찌릿해지는 그 순간 미경은 어찌하여 자기가 우리 원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도안을 그릴수 없었는가를 사무치게 깨달았다.

그에게 도안은 종이장우의 그림이였다. 그러나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그것은 새 교복을 받아안고 좋아할 학생들과 부모들의 얼굴이였고 더욱 환해질 나라의 모습, 미래의 모습이였다. 미경이 도안가의 눈으로만 본 교복도안을 우리 원수님께서는 수백만 자식들을 품어안은 어버이의 진정넘친 눈길로 보시였던것이다.

교복을 입을 주인들의 목소리와 눈빛을 안고 학교에서 돌아온 미경은 그들의 마음을 담아 절개선 하나, 깃 하나도 무겁게, 지성껏 다시 그려나갔다.

새로운 교복도안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신 그날로부터 교복이 완성되기까지 19달, 창작가들의 시야를 틔워주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지도해주신 도안과 견본만도 그 얼마였던가.

그 나날은 미경에게 있어서 대학생으로부터 소학교 신입생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학생들을 교복도안앞에 마음속으로 한명한명 세워보시며, 창전거리 새 집에서 무릎에 앉히시였던 아이로부터 몸소 사진까지 함께 찍으신 섬초소마을의 꼬마의 목소리까지 마음속에 귀기울여 들어보시며 새 교복을 완성시켜주신 우리 원수님의 진정을 도안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절감한 나날이였다. …

새 교복을 쌍둥이들처럼 차려입고 활짝 열린 학교정문으로 꽃물결처럼 흘러드는 신입생들을 그린듯이 바라보는 그의 뇌리에는 한해전 12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셨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자구구 되새겨졌다.

《우리는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학생들에게 무조건 교복을 해입혀야 합니다. … 이 사업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두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야 할 사업입니다.》

후대들을 위하여,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야 할 사업!

어버이의 그 뜻을 받들어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성해주신 꼭 그 도안대로 교복을 만들기 위하여 정성껏 천을 짰고 최상의 수준에서 견본을 제작하였다. 교복을 견본보다 더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사랑을 안고 품들여 작성한 규격에 맞추어 한뜸한뜸 바늘을 누볐고 엄격히 검사하여 합격도장을 찍어주었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신발공장, 양말공장, 수지일용품공장…

가슴에 꽃을 단 신입생들이 끝없이 밀물쳐왔다. 월사금, 등록금이라는 말을 영원히 모르고 살 복받은 아이들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꽃대문으로 활개치며 들어섰다.

(너희들 다 아니, 얼마나 깊은 사랑이 그 옷에 깃들어있는지. …)

미경은 저도 모르게 북받치는 격정에 1학년생 꼬마들의 물결속에 뛰여들었다.

《새 교복색갈이 어떻니?》

《좋아요. 우리 엄마가 나는 얼굴색이 하얗지 못한데 이 새옷 입으니까 얼굴이 막 고와보인대요.》

《일어섰다 앉았다 해봐라. 치마가 편안하니?》

《편안해요.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아 뛰여놀기도 좋아요. 우리 엄마 주름잡기도 좋대요. 난 이 옷 아껴입을래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감격에 흠씬 젖게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더불어 우리 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이 미경의 가슴을 흔들며 메아리쳐왔다.

소학교, 중학교 남학생들의 교복은 목깃을 닫긴깃으로 하되 각이 나게 하지 말고 약간 곡선을 주면서도 좀 크게 하며 소학교 녀학생교복색갈도 중학교 녀학생교복과 같이 옷옷은 진자주색으로 하고 치마는 진회색으로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던 그 다심한 진정이 이렇듯 기쁨넘친 아이들의 목소리, 저렇듯 고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낳은것이 아닌가.

《나도 곱나요?》 하며 안겨드는 귀여운 처녀애를 미경은 꼭 품어안았다.

소학교 녀학생교복치마멜띠를 곱하기표식처럼 어기게 하여놓으니 보기가 좋지 않다고, 누구나 무심히 스친 치마멜띠까지 품들여 고쳐주신 그 따스한 손길이 찌릿하게 느껴지는 교복자락을 어루만지며 미경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뢰였다.

(원수님, 아이들이 마음에 들어합니다!)

* *

눈물이 뚝 떨어졌다. 대학생아들의 새 교복우에.

미경은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다시 다리미를 잡았다. 태양절 전날 밤이였다.

어제날 학생시절의 미경이가 국가로부터 받은 새 교복의 치마주름을 다려주면서 눈굽을 적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미경이네 삼형제모두가 꼭같이 새 교복을 입고 개학식장으로 달려가던 모습을 보며 솟구치는 감격에 곱씹어외우던 어머니의 말이 되새겨졌다.

《나라에서 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다 대신해주었구나.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마음쓰셨겠니.》

그날의 학생이였던 미경은 오늘 어머니가 되여 아들의 교복을 다려주고있는것이다. 이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눈물지으며 자식들의 새 교복을 다리고있을것인가.

교복!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4년세월 고이 간직해오신 어머님의 유산—돈 20원으로 헐벗은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에게 해입히신 새옷이였다. **《나보다 더 신사로구만!》** 하시며 우리 학생들에게 훌륭하고 멋진 새 교복을 그쯘하게 입히신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우리 수령님께서 눈가에 피곤이 실려 잘 보이지 않으실 때까지도 찍고 또 찍어주신 영광의 기념사진이였다. 수백만에 달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몸을 다 재여 부모들이 감탄할 정도로 옷을 만들어 해입히라고 이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신 그 당부였다.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못 잊을 그 말씀을 새겨볼수록 미경에겐 교복도안 한장한장이 무심히 않았다.

그것을 어찌 사치와 향락, 상품의 가격이나 예술적가치의 만족을 위해 그린 백만금짜리 도안에 비길수 있으랴.

미경에겐 그 소박한 교복도안이 두고두고 간직할 창작의 교과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걸작품으로 안겨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후대사랑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다면 그는 서슴없이 이 교복도안을 그릴것이다.

눈부신 해살이 창가로 쏟아져내렸다. 태양절 아침이 밝았다. 창문을 열자 4월의 훈향이 가슴한가득 밀려들었다.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들이 손에손에 꽃송이를 안고 삼삼오오 거리로 물결쳐가고있었다. 이제 분명히 그들은 우리 수령님들을 뵈오러 갈것이다. 《수령님, 장군님! 우리 원수님께서 새 교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목메여 아뢰일것이다.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을 화실로 삼고 당중앙이 도안가, 국가가 학부형이 되여 그리고 완성한 새 교복, 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그늘없는 모습으로 더욱 밝아지고 젊어진 사회주의 내 조국,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오직 우리 조선에만 있는 사회주의명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명화는 세세년년 부흥하는 이 땅우에 강성조선의 새 풍경으로 끝없이 태여날것이다. 조선로동당의 품이 있는 한!

미경은 소중한 교복도안을 더욱더 가슴에 꼭 품어안았다.

(이 작품에 제목을 단다면? 그래, 그것이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본사기자 조향선

조국통일3대원칙에 깃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의지를 북돋아주고 자주통일의 진로를 환히 밝히는 불멸의 기치가 힘차게 나붓기고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되새기느라면 우리모두의 가슴가슴은 겨레에게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마련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뜨겁게 젖어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였으며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내놓으신것은 1970년대초 평양에서 열린 북남고위급정치회담때이다.

당시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었다. 날로 높아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과 조국통일운동으로 하여 궁지에 몰린 미국과 괴뢰패당은 《두개 조선》을 영구화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그 실현을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열어가실 각오와 의지를 안으시고 한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분은 바로 절세의 애국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조성된 정세를 깊이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남대화를 통하여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것을 결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60(1971)년 8월 남조선의 집권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폭넓은 협상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지금껏 있어본적이 없었던 획기적인 제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폭넓은 북남협상방안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온 겨레의 념원이 반영된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인민들은 반통일세력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 《예속과 굴종을 강요하는 노예화의 행위》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폭넓은 협상방안을 열렬히 지지하고 찬양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덕망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 원숙한 정치적수완으로 사태가 돌변하자 북남사이의 그 어떤 접촉도 거부해오던 남조선당국자들은 하는수없이 대화의 마당에 끌려나오게 되였다. 이리하여 북남사이에는 분렬사상 처음으로 여러 갈래의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주체61(1972)년 5월초에는 평양에서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5월 3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몸소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은 아량과 포옹력앞에 남측대표는 너무도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측대표에게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지 못하고 분렬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렬강들의 롱락물로 될수 있다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고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구상하시고 무르익혀오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한조항한조항 짚아가시며 그 본질적내용과 정당성을 사리정연하게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원칙적립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끼리 접촉하여 대화하면 능히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고, 우리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이기고 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전국적범위에서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인것만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대단결을 도모해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화통일의 원칙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순간부터 그이의 고매한 덕망과 인품에 매혹되여 어쩔바를 몰라하던 남측대표는 너무도 론리정연하고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가 차넘치는 수령님의 귀중한 교시를 받아안으며 그이께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물론 민족앞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민족적량심을 지녔다면 주저없이 받아들일수 있는 지극히 애국애족적인 가르치심이였다.

남측대표는 자리에서 거듭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자도 찬성할것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리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을것을 맹세합니다.》라고 다짐하였다.

담화는 새벽녘에야 끝났다.

사람들이 모두 깊이 잠든 때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한밤을 지새우시며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을 제시하시여 마침내 통일운동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시였다. 오늘 조선민족이라면 그 누구나가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으로, 민족공동의 확고부동한 통일강령으로 떠받들고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이렇듯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투철한 자주통일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결정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그해 7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발표되던 그날 북남삼천리에 굽이쳤던 격정과 환희의 목소리는 오늘도 온 겨레의 가슴속에 메아리되여 울려오고있다. 《민족분렬의 비극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게 된 력사의 새로운 분기점》, 《남북통일의 밝은 서광》, 《자주통일의 거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마련해주심으로써 우리 겨레는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며 통일운동발전을 적극 추동할수 있었으며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을 련이어 창조한 6.15통일시대의 경이적인 현실도 안아올수 있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반통일도전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운동이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궤도를 따라 확신성있게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들을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 천출위인으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따르고 받드는 또 한분의 민족대단합의 중심, 조국통일의 찬란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놓으신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 그이의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 의지와 신념이 있기에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조국통일은 머지않아 반드시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혁명적동지애, 전우애의 최고화신

총련일군들은 해외전사들의 애국의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강추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전 총련일군들의 유해가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륭성번영과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 생을 바친 해외전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였다. 떠나간 혁명동지들을 그토록 못 잊어하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대한 동지적의리의 세계에 떠받들려 그들은 조국의 기억속에,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다.

인류력사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이처럼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자본주의광풍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이역땅에서도 오로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며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한몸 바쳐올수 있었다.

진정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의 삶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온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진정한 어버이품, 영원한 태양의 품이다.

조일연 총련 사이다마현본부 위원장은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만경대가문의 가풍이고 백두산위인들의 천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쓰자면 아마 천만자루의 붓이 닳도록 쓴대도 못다 쓸것이다. 이 세상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많아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지애처럼 열렬하고 순결무구한 사랑은 없다.

절세위인들과 이역의 전사들이 대를 이어 맺은 혈연의 뉴대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를수 없는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는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라는 혁명적인생의 철리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리홍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백두에서 시작된 동지애의 숭고한 력사는 혁명적동지애, 전우애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원수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지만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하나의 혈육이라고 하시면서 주체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귀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해주시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계신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나가는 해외혁명전우, 해외혁명동지가 되여 어버이장군님의 유훈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반드시 열어놓을것이며 주체혁명위업, 총련애국위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독재정치, 부정부패를 일삼는 무리들에 력사의 무덤에 처넣자

청와대의 꼭두각시—괴뢰검찰

남조선에서 성완종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속에 여론의 초점은 검찰의 사건수사에 집중되고있다.

지난 4월 13일 괴뢰검찰은 사건특별수사조를 꾸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항상 괴뢰당국의 앞잡이가 되여 부패한 권력자들을 비호두둔해온 검찰이 특대형권력추문인 이번 사건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남조선 각계가 품고있는 의문이다. 항간에서는 검찰이 떠드는 《엄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돌고있다. 정보원선거개입사건, 정윤회국정개입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을 보면 이번에도 검찰측이 절대로 집권세력의 부정부패죄행을 파헤칠수 없다는것이다. 이것은 결코 공연한것이 아니다.

권력의 둘러리,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있는 괴뢰검찰이 이번에는 과연 그 더러운 락인을 지울수 있겠는지.

성완종사건의 기본대상은 전 괴뢰국무총리와 청와대비서실장을 비롯한 현 《정권》의 핵심인물들이다. 력대로 남조선에서 권력층의 부정부패사건들이 수없이 터져나왔지만 이번처럼 집권자의 최측근들이 모두 걸려든 사건은 없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흑막속에 숨겨져있던 2012년 《대통령》선거자금문제까지 제기된 조건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과연 검찰수사를 강건너 불보듯 하고만 있겠는가 하는것이 여론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더우기 이번 사건은 괴뢰법무부장관과 청와대민정수석이 수사를 총적으로 지휘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들은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청와대가 저들의 구미에 맞는 검찰수사방향을 제시하고 《면죄부수사》에로 유도할수 있다는 우려를 털어버릴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모두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당연하다.

괴뢰법무부장관 황교안은 지금까지 청와대를 등에 업고 검찰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였다.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당시 청와대의 뒤를 캐는 전 검찰총장 채동욱을 사생아문제를 구실로 해임시킨것이 바로 황교안이다. 남조선정계의 보이지 않는 권력자로서 일명 《왕수석》으로 불리우는 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자기의 측근들을 검찰의 요직에 박아넣는 등으로 검찰사업에 대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그러니 이들이 지휘하는 사건수사가 야당들과 각계가 요구하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리치이다.

벌써부터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있다. 검찰이 그 무슨 《증거인멸시도》를 운운하며 성완종의 운전사, 수행비서, 부사장, 리사 등 그의 측근들을 잇달아 사법처리하면서도 전 괴뢰국무총리, 청와대비서실장을 비롯한 성완종사건의 목록에 올라있는 주요범죄자 8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외면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결국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측만 잡아가두고 부패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감싸고있는 꼴을 보이고있다.

검찰은 전 괴뢰국무총리 리완구와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기춘, 경상남도지사 홍준표가 범죄혐의의 증거들을 없애려고 갖은짓을 다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공개되였는데도 그들에 대해 기초조사조차 하지 않고있다.

성완종은 지난 2006년 9월 현 집권자의 도이췰란드행각에 쓰라고 그를 수행한 김기춘에게 10만US$를 주었다고 고발하였다. 그러자 김기춘은 펄쩍 뛰며 자기들을 초청한 도이췰란드의 한 재단이 항공료와 체류비를 대주었기때문에 성완종으로부터 돈을 받을 리유가 없었다고 수염을 내리쓸었다.

그런데 도이췰란드의 재단이 《항공료를 대준적이 없다.》고 까밝히는통에 김기춘이 거짓말을 했다는것이 립증되였다. 한때 성완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무슨 《해명》을 한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우던 김기춘은 지금 손전화기까지 끄고 일체 침묵하는 전술을 쓰고있다고 한다.

성완종에게서 1억원을 받은것으로 알려진 홍준표는 또 어떤가. 홍준표가 자기를 터무니없이 모해한다고 야단쳤지만 그의 측근들이 성완종이 찔러준 돈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몰래 만나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회유한 사실이 신문 《한겨레》를 통해 폭로되였다.

리완구도 성완종을 알지도 못한다고 시치미를 떼다가 그와 1년동안에 무려 200여차의 전화련계를 가졌고 지어 그와 몰래 단독상면까지 한 사실을 자기 운전사가 증언하면서 꼼짝 못하게 되였다.

검찰측이 《엄정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응당 널리 여론화되는 이런 문제들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신속히 파헤쳐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패거리들은 사건의 《결가지가 본가지가 될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구실을 늘어놓으면서 성완종측근들의 《증거인멸시도》만 부각시켜 그들에 대한 수사에만 몰두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들과 사회 각계에서는 《검찰의 직무태만을 용서치 않겠다.》, 《〈대통령〉도 수사대상에서 례외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분노를 터치고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과 참여련대 등 14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대통령》에게 가해질 부담이 적은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수사하지 말고 성완종이 고발한 8명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새정치민주련합은 현재의 검찰수사로써는 성완종사건을 철저히 수사할수 없는 조건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하지만 괴뢰집권자는 특검도입을 마다할 리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외면하는 등 성완종사건의 진펄에서 빠져나오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현실은 괴뢰집권세력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쥐락펴락하며 조종하고 검찰패거리들이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되여 사건수사를 왕청같은데로 끌고가는 한 성완종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침몰시키려는가

남조선신문이 단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4월 30일 사설을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가로막는 괴뢰정부를 규탄하였다.

사설은 《정부》가 국민의 거센 반발로 하여 29일 《세월》호참사특별법관련 《시행령수정안》을 발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핵심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있는 《수정안》이여서 불붙은 비판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고 규탄하였다.

애초 《정부》의 《시행령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규모와 진상조사범위를 대폭 축소한것이였다고 하면서 이런것들이 새로 발표된 《시행령수정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비난하였다.

《정부》가 쓰레기같은 《시행령수정안》을 내놓은것은 참사의 진실을 침몰시키겠다는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 박근혜를 우두머리로 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손발을 맞추며 참사진상규명을 한사코 가로막았다고 단죄하였다.

력사가 증명하듯이 진실은 결코 가리울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세월》호특별법이 600만명 국민의 서명을 바탕으로 희생자가족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박근혜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설은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시행령안》을 강행한다면 력사의 심판과 함께 정치적파산을 면할수 없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박근혜는 《시행령안》 페기결단을 내리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성원들 통성

남조선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성원들이 4월 27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괴뢰당국의 《시행령안》을 반대하여 통성에 돌입하였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발언자들은 《세월》호참사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여있으나 《정부》의 방해로 아직까지 정식으로 조직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더우기 현 《정부》가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박근혜가 하루빨리 《시행령안》 페기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부패의 고름을 외과수술적으로 도려내야 한다

남조선의 《서울신문》이 4월 23일 특대형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괴뢰당국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현 《국무총리》 리완구가 사퇴의사를 밝히자 박근혜는 《검찰은 정치개혁수준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것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떠벌인데 대해 폭로하였다.

정치개혁을 고리로 성완종사건의 파문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셈이라고 까밝혔다.

성완종사건은 전, 현직 청와대비서실장 등 핵심측근들이 줄줄이 련루된 사상초유의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남의 일인듯 명분만 내세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자들의 부패의 고름을 외과수술적으로 도려내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이지 정치개혁이나 웨칠 때는 아니라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부패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정치개혁을 말릴 국민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개혁의 주체와 대상을 혼돈해서는 안된다.

성완종사건은 2007년과 2012년 《대통령》선거불법정치자금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하려면 이 점부터 먼저 분명히 해야 할것이다.

제발앞의 썩은 정치오물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면서 거창하게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것은 다른 부메랑이 되기 쉽다. 만일 정치적의도가 담긴 술책이라면 결단코 성공할수 없다.

리완구가 물러난다고 해서 《정권》의 핵심이 련루된 악성비리사건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괴뢰집권자를 반대하는 투쟁 전개

◇ 남조선청년들이 4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괴뢰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시위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박근혜가 불법적인 《대통령》선거자금문제가 폭로된 상태에서 명분없는 해외행각에 나섰다고 하면서 이것은 집권자에게 책임의지가 전혀 없다는것을 말해준다고 비난하였다.

현 《정권》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박근혜 〈정부〉 타도하자.》고 웨치며 괴뢰정권심판을 주장하는 내용의 삐라 수백장을 뿌렸다. 그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전원을 강제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한편 괴뢰대검찰청앞에서 사회활동가 박성수를 비롯한 각계 성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그들은 현 《정부》가 삐라에 박근혜의 이름만 들어가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몰아 탄압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대검찰청이 배후에서 조종하고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시대에 역행하는 수사를 중지하고 부당한 탄압을 즉시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이 반박근혜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급급하는 공안세력을 성토하는 선전활동을 벌렸다.

급해맞은 괴뢰패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몰아 박성수를 련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권의 황량한 무덤, 숨막히는 독재사회 (5)

깡그리 말살당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진리를 따르며 그에 대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 괴뢰당국은 이전 《유신》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탄압소동으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유린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남조선은 암흑지대로 락인되고있다.

괴뢰들은 꺽하면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떠벌이며 남조선에 《무제한한 자유》가 있는듯이 광고해왔다. 괴뢰들이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을 비호하며 들고나온것도 《표현의 자유》간판이다. 하지만 오늘날 남조선에 펼쳐진 비극적현실은 괴뢰들이 말끝마다 운운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것이 사실상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을 억누르는 반인민적인 파쑈독재통치의 자유, 썩어빠진 남조선의 사회현실을 정당화하고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자유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유신》독재의 때가 짙게 묻어있는 현 괴뢰집권자는 청와대에 들어앉은지 얼마 안되여 본심을 드러내며 반역통치에 반기를 드는 진보민주세력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보수《정권》유지를 위한 발판을 닦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들면서도 남조선의 험악한 사회현실과 공화국북반부의 눈부신 모습,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각계층 인민들의 견해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차없이 유린말살한것이 바로 현 괴뢰집권자의 반인권적죄악이다.

지난 2013년 2월 괴뢰파쑈당국은 한 진보단체 인사가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무작정 《북의 지령에 따른것》이라고 걸고들며 야만적탄압을 가하였다. 그해 4월에는 한 작가가 우리 공화국의 격동적인 현실을 그대로 소개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징역형을 들씌웠으며 한 영화감독에게는 인터네트에 공화국을 찬양하는 《리적표현물》을 올렸다고 하면서 박해를 가하였다. 이어 파쑈광들은 한 통일운동단체 사무국장을 비롯한 3명의 성원들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도서들을 가지고있었다느니, 《북의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느니 하고 생트집을 걸면서 그들을 마구 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각계층 인민들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며 가차없이 말살한 사실들은 이루 다 꼽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얼마전에 있은 남조선의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과 재미동포녀성인 신은미에 대한 탄압사건은 꼬물만 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도 없는 남조선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것으로 하여 내외의 경악을 자아냈다. 황선과 신은미가 탄압의 대상으로 된 리유는 단 한가지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보고 느낀대로 말한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죄로 될수 있는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북에 대한 비난외에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것이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여지없이 말살된 현실을 개탄하였다.

남조선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것은 반역통치배들과 독재《정권》의 앞잡이들, 북남관계파괴에 미쳐날뛰는 인간쓰레기들뿐이다.

괴뢰집권세력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는 란폭하게 짓밟으면서도 반공화국모략에 피눈이 되고있는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망동은 《표현의 자유》로 적극 비호두둔하고있다. 이것만 놓고서도 괴뢰패당이 떠들어대는 《표현의 자유》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유신》독재가 되살아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언론의 자유도 없다. 진보적언론인 《자주민보》가 강제폐간된것도 그것을 립증해준다.

알려진바와 같이 《자주민보》는 남조선에서 정의와 량심을 옹호하고 친미사대와 파쑈독재를 반대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진보적인 언론활동을 벌려왔다. 이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괴뢰보수패당은 《자주민보》에 대해 《종북매체》, 《리적》의 감투를 씌워 이 신문의 주요관계자들을 박해하던 끝에 신문자체를 강제로 폐간시키였다. 《유신》독재시기에나 찾아볼수 있는 이 파쑈적악행에 대해 남조선 각계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폭거》,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판결》이라고 단죄의 목소리를 높인것은 당연한것이다. 그야말로 입이 있어도 말할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수 없는 인권의 황량한 무덤, 숨막히는 독재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지난 2월 남조선에서는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대표적실례로 락인된 리완구의 망동이 폭로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둔 리완구는 자기의 부동산투기의혹 등 부정부패행위들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급해맞은 나머지 언론사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사를 당장 삭제하라고 호통쳤다. 그리고 자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을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것이 록음되여 공개되면서 현 괴뢰집권세력의 파쑈적인 언론장악책동의 일단이 드러났다.

그후 집권자의 비위를 맞추며 언론의 자유를 란폭하게 침해해온 리완구는 아무 일없는듯이 괴뢰국무총리자리에 올라앉았었다.

현 괴뢰집권세력내부에는 언론을 저들의 비위에 맞게 길들이며 반역통치를 미화하고 사회를 독재의 란무장으로 만드는 파쑈분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니 어떻게 남조선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활동의 자유를 기대할수 있겠는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여날수 없듯이 《유신》독재부활에 환장이 되여 인민들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전취물을 빼앗고 철저히 유린하고있는 괴뢰보수패당이 살판치는 남조선에서는 진정한 인권이란 있을래야 있을수 없다.

본사기자 장윤남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빛을 뿌릴것이다

뜻깊은 태양절을 세계적판도에서 성대히 경축

영원불멸할 업적과 숭고한 덕망으로 인류사에 거룩한 자욱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을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만민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해빛같은 미소속에 영생하시는 걸출한 수령, 자애로운 어버이를 그리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년초부터 준비사업이 시작되였고 근 70개의 경축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였다.

네팔, 파키스탄, 메히꼬, 에꽈도르, 나이제리아, 베닌, 에짚트, 우간다, 로므니아에서 전국적범위의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였는가 하면 이란이슬람교련합당,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베닌사회주의당, 도이췰란드공산당에서는 특성에 맞게 따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로씨야에서는 모스크바, 나호드까, 하바롭스크, 울리야놉스크, 까렐리야 등지에 각급 준비위원회들을 조직하였으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은 국제준비위원회결성과 관련한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나라와 지역의 고위인사들이 망라된 준비위원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광범히 전개해나갔다.

4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각국의 출판보도활동이 활기를 띠였다.

로씨야, 도이췰란드, 프랑스, 에스빠냐, 꽁고, 남아프리카, 알제리, 브라질, 메히꼬의 정당, 단체, 기관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자》,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비롯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저서들인 《김일성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여난 불멸의 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의 전문 또는 요지를 로므니아사회주의선택당,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인터네트홈페지와 인도네시아신문 《인터내셔널 메디아》,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 블레찐이 게재하였다.

몽골신문 《울란바따린 쏘닌》, 앙골라신문 《우 빠이스》, 민주꽁고신문 《라 쁘로스뻬리떼》,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인터네트홈페지 《주체사상》 등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략력을 편집하였다.

수많은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 잡지, 인터네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김일성, 빛나는 존함》, 《김일성주석의 기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기적과 김일성주석》, 《김일성, 자애로운 영상》, 《영생하시는 김일성주석》, 《주체의 영원한 태양》, 《국제주의자의 귀감》 등 제목들로 특집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맞으며 국제사회는 조선민족이 낳은 전설적영웅, 탁월한 혁명가, 고결한 인간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그이의 위대성을 다시금 뜨겁게 회고하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김일성주석께서는 불멸의 사상과 업적으로 하여, 특출한 위인상으로 하여 영생하신다, 그이의 존함은 반제민족해방투쟁과 자주위업의 승리의 상징으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강조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불태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한평생을 찬양하였다.

김일성화명명 50돐으로 하여 더욱 의의가 큰 올해의 태양절을 계기로 각국 언론들은 김일성화사진을 싣고 그 생물학적특성과 위인홈모의 꽃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언론들은 김일성화의 탄생은 김일성주석에 대한 인류의 매혹과 신뢰가 낳은 귀중한 결정체이며 가장 아름답고 진귀한 꽃에 위인의 존함을 모시고싶어하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의 반영이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데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분출이였다고 평하였다.

또한 김일성화는 명화중의 명화이며 인류공동의 재보라고 하면서 불멸의 태양화는 김일성주석을 우러르는 세계인민들의 열화같은 경모심에 떠받들려 날이 갈수록 더욱 만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에꽈도르 쵸르델레그시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명예시민칭호를 드리였으며 로씨야, 잠비아인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선물을 올리였다.

캄보쟈국왕과 대왕후를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과 정당, 정부 성, 기관, 단체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보내여왔다.

많은 나라의 정당, 단체, 지역기구와 각계 인사들은 우리 나라 대표부를 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이란 《로동자의 집》,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 및 련대성협회,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청년조직 그리고 수리아아랍사회주의자운동 총비서,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쿠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당, 단체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은 태양절을 축하하여 담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담화, 성명들은 20세기 위인중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은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석의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덕망은 세인을 감동시키고있으며 누구나 그이를 열렬히 흠모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류자주위업에 한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은 세계가 공인하는 희세의 정치가, 절세의 애국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라고 호칭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불세출의 위인의 탄생일을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맞이할 일념에서 세계인민들은 5대륙 방방곡곡에 연450여회에 걸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펼쳐놓았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메히꼬와 인디아에서 전국토론회가, 뻬루에서는 중앙집회가, 스웨리예에서 태양절경축 북유럽지역 정당, 단체들의 련합모임이 진행되고있을 때 로씨야, 벌가리아, 뻬루, 나이제리아, 기네, 중국, 말레이시아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리였다.

몽골민족종합대학에서 제1차 태양컵 태권도선수권대회개막이 선포되고 로씨야 블라고웨쉔스크국립사범종합대학, 원동련방종합대학 나호드까분교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도네시아방문 50돐과 김일성화명명 50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에서만도 김일성화전시회, 식물원참관식, 공동우표발행식이 진행되고 기념도서가 재발행되였다.

행사장들마다에는 자주시대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비범한 사상리론가,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세인이 경탄하는 자주강국을 일떠세우신 령도의 거장에 대한 경모의 정이 세차게 굽이쳤다.

태양절경축 에꽈도르전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게 되였다, 세계정치사에는 이름있는 정치가들이 많았지만 김일성주석과 같이 혁명령도 전과정을 영광스러운 년대기들로 수놓으신분은 일찌기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제1비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가장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응당한것이라고 말하였다.

몽골 어버르한가이도 아르바이헤르시 시장은 한세기전 대국들의 흥정물로 국권까지 빼앗겼던 조선이 오늘은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며 자주권을 수호해나가고있는것은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격찬하였다.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 위원장은 주체의 나라,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경제적자립을 실현한 나라, 진정한 인민의 나라,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위력한 나라로 위용떨치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인민도 위대한 인민으로, 나라도 위대한 나라로 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선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는 조선은 자랑찬 승리의 력사, 진정한 인민의 력사를 창조하며 영광의 한길로 전진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3돐을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커다란 환희와 격정속에 맞고보낸 사실은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인류가 낳은 대성인이심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세기를 이어 더해만 가는 만민칭송의 열기속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태양절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싸드》의 남조선배비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성명 발표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이 미국의 《싸드》 남조선배비책동을 규탄하여 얼마전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조선에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를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책동은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파괴하기 위한 도발행위로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켜 이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음흉한 목적을 내포하고있다.

우리는 강권과 위협에 눌리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전쟁전략에 맹종맹동하는 유엔과 미국의 하수인노릇을 하는 남조선괴뢰들을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의 반인류적인 전쟁책동을 다시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의지에 련대성을 표시한다.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은 미국의 전쟁책동에 단호히 맞서나가는 조선인민에게 다시한번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 *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남조선에 《싸드》를 배비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규탄하여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싸드》를 남조선에 전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준비를 갖추는것과 함께 전략적경쟁자들인 로씨야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싸드》의 배비는 또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한층 강화하고 동북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의 형성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전략적목적과 직결되여있다.

미국의 이 위험한 전략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랭전상태가 무한정 지속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싸드》를 전개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흑인폭동으로 또다시 몸부림치는 미국, 폭압에 광분하는 경찰

미국전역이 흑인폭동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들었다.

AP, UPI 등 미국의 통신, 방송들과 세계 각국 언론들이 미국사회를 뒤흔들어놓고있는 흑인들의 폭동에 대해 일제히 전하고있다.

세계최악의 인권말살제국, 인권의 동토대로 악명떨치고있는 미국이 극도의 인종차별과 인권유린행위에 분노한 흑인대중의 폭동으로 몸부림치고있다.

사태의 동기로 된것은 지난 4월 19일 볼티모어시의 백인경찰이 죄없는 흑인청년을 강제련행하여 한주일동안 경찰서에서 야만적인 폭행을 가하여 그가 끝내 숨지게 한 사건이였다.

25살 난 이 흑인청년은 백인경찰들의 무차별적이며 야수적인 폭행으로 척추가 부러져 사망하였다고 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노스찰스턴시에서 백인경찰이 50대의 흑인주민을 집승사냥하듯 총으로 무참하게 쏘아죽인데 대한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을새 없이 또다시 벌어진 만행에 대한 소식에 접한 흑인군중이 련일 거리들에 떨쳐나와 《미국에는 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다!》, 《총을 쏘지 말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경찰의 살인행위에 환멸과 격분을 표시하였다.

4월 28일과 29일 미주리주의 퍼구슨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볼티모어시민들의 항의행동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시위와 집회들이 진행되였다.

당국의 인종차별정책과 백인경찰들의 인권유린만행에 항의하는 시위는 워싱톤과 뉴욕, 퍼구슨, 보스톤, 미네아폴리스, 인디아나폴리스 등 전국각지로 급속히 전파되여 대규모의 흑인폭동으로 번져졌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시위자들에게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쏘면서 탄압에 광분해나섰다.

퍼구슨에서는 경찰들이 시위군중을 향해 발사하여 여러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였으며 볼티모어에서는 230여명의 시위자들이 경찰서들에 끌려갔다.

격노한 시위자들이 경찰차량들에 불을 지르고 돌과 병을 던지면서 기세를 올리였다.

폭압에 날뛰던 백인경찰들속에서 부상자가 나고 길가의 상점건물들이 파괴되는 등 일대 혼란이 조성되였다.

흑인들의 항의투쟁이 폭동으로 번져진데 당황해난 당국이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천명의 경찰을 시내 곳곳에 파견하여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미국언론들은 이번 시위사태가 1968년 4월 흑인해방운동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목사암살을 계기로 벌어진 폭동이후 최악의 흑인폭동으로 된다고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서 5.1절 기념

로씨야에서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을 기념하였다. 1일 모스크바의 크레믈리에서는 나라를 위해 공로를 세운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로씨야련방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의식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전선군인들의 영웅적위훈과 후방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승리하고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고 하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나라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로씨야는 더욱 부강해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붉은광장에서는 시정부와 로씨야련방공산당, 정의의 로씨야당, 각급 직업동맹조직들의 주최로 대규모군중시위와 집회들이 벌어졌다.

모스크바시장 쎄르게이 쏘뱌닌, 로씨야무소속직업동맹련맹 위원장 미하일 슈마꼬브, 모스크바직업동맹련맹 위원장 쎄르게이 체르노브가 14만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기발과 풍선, 프랑카드들을 들고 붉은광장과 와씰리옙스끼언덕을 따라 행진하였다. 쏘뱌닌시장은 모스크바시민들이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는 근면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훌륭히 이겨낼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시내 곳곳에서 음악회, 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싼크뜨—뻬쩨르부르그, 노보씨비르스크, 울라지보스또크, 크림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도시들에서 5.1절 기념행사들이 있었다.

포르 에쏘짐나 그나씽그베 또고대통령으로 재선

포르 에쏘짐나 그나씽그베가 또고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그는 최근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고 한다.

로골화되는 군사적결탁강화책동

미국이 이스라엘에 신형전투기들을 팔아먹으면서 군사적결탁관계를 강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최근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미국부대통령 바이덴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투기판매가 중동지역에서 군사적우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F-35》전투기들이 예정대로 이스라엘에 납입될것이라고 말하였다.

2010년에 19대의 《F-35》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인 이스라엘은 2021년까지 14대의 전투기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미국의 군수독점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한편 일본과 미국이 군사적일체화를 실현하여 공동작전능력을 높이려고 획책하고있다.

최근 일본의 《아사히신붕》은 일미정부가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 등을 결정하는 협의마당인 《조정소》를 언제든지 설치할수 있도록 합의한데 대해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은 일본방위성의 중앙지휘소에, 일본《자위대》는 요꼬다주일미군기지에 각각 련락원을 파견하게 된다고 한다. 신문은 일본과 미국의 군사적일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전략무력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많은 나라들이 군력강화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특히 전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로씨야가 눈에 띄게 전략무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다.

전략핵무력발전이 올해 로씨야련방 국방성의 우선방향으로 정해졌고 이에 따라 전략무력의 전투준비상태에 대한 불의의 검열과 미싸일발사에 중점을 둔 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지난 3월부터 해군전략핵무력인 북함대의 잠수함기지와 오렌부르그미싸일련합부대에 대한 종합검열이 진행되였다. 4월에는 로씨야동부 7개 지역의 구분대들에서 《C—300》, 《C—400》미싸일종합체들로 가상적의 집중적인 미싸일 및 항공타격을 격퇴하는 훈련, 로씨야동부군관구에서는 《Cy—35》전투기들의 미싸일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

태평양함대 함선집단의 실탄사격훈련에서는 대공미싸일종합체 《낀잘》을 리용한 목표소멸의 정확성도 검증하였다고 한다.

전략로케트군에서는 올해에 100여차의 지휘참모훈련, 전술 및 특수훈련이 불의에 진행되며 매 훈련기간 40여개의 미싸일련대와 보장부대들이 고도의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갈것이라고 한다.

군부대들의 군사훈련이 강화되는 속에 얼마전 로씨야국방공업종합체는 올해에 반항공방어 및 미싸일방위체계를 위한 미싸일생산을 지난해보다 3배로 늘일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수천기의 미싸일을 생산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반항공방어 및 미싸일방위체계들의 생산속도를 높이며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서의 그 전개기한을 단축할데 대한 과제가 제시되였다고 한다.

최근 이란도 전략무력강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란이 지난 3월에 지상기지순항미싸일을 성과적으로 시험발사하였다고 한다. 그 전달에는 신형전략무기에 대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으며 미항공모함을 가상한 목표물을 순항미싸일과 탄도미싸일들로 반공격하는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장거리미싸일 《가드르》와 《기암》을 대량생산하여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항공우주군에 납입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은 로씨야와 군사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있다. 최근 이란이 로씨야의 《C—300》미싸일종합체를 수입하려 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도 국산제무인기의 시험비행과 레이자유도미싸일, 국산제순항미싸일,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장거리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현시기 많은 나라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전략무력강화는 미국에 의해 산생된 필연적결과이다. 미국의 유럽과 알라스카에 대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 전세계적인 신속타격체계확대는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되고있다.

로씨야국방성의 한 인물은 미국이 남조선에 세계적인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을 배비하는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군사정치정세를 격화시키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모두는 미국으로부터의 현실적인 군사적위협에 대처해야 할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는 한 군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중요하게 제기된다.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실현책동에 전략무력강화로 대응해나가려는 각국의 노력은 더욱 힘있게 진행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룡

반제자주, 단결과 협조를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와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 60돐 및 새로운 아시아아프리카전략적동반자관계수립 10돐 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세계평화와 번영촉진을 위한 남남협조강화》라는 주제밑에 진행된 수뇌자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90여개 나라와 지역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와 기념행사들에서는 반둥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할데 대한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아시아아프리카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며 4월 24일을 아시아—아프리카의 날로, 반둥을 아시아—아프리카단결의 도시로 선포하기로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있은 첫 아시아아프리카회의는 지난날 력사밖에 밀려났던 두 대륙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기운명을 당당히 개척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이 회의에서 관통된 반제자주, 단결과 협조의 사상은 반둥정신으로 불리우며 오늘까지도 이어져오고있다.

오늘 아시아, 아프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이 단결과 련대성, 협조를 확대강화해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각종 미명하에 감행되고있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력침공과 군사적위협, 제재와 압력, 온갖 형태의 내정간섭 그리고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와 《세계화》의 부정적영향은 두 대륙 나라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전면적인 협조와 뉴대를 강화해나감으로써 공동의 노력으로 평화와 번영을 마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와 기념행사들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인도네시아대통령은 현시기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유엔이 제구실을 못하고있는데 대해 문제시하면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정의를 보장할수 있도록 유엔을 시급히 개혁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는 렬강들의 지배주의정책에 맞서 두 대륙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다무적무역제도를 수립할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평등에 기초한 단결, 친선, 협조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서로 어깨겯고 나아갈것을 주장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반둥정신을 계승해나갈 자기 나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짐바브웨대통령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사이의 새로운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확대강화해나가는것은 공동의 지향이며 공약이라고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실천적인 발기들과 협력계획들을 실속있게 리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슈수상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세계 총생산과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조건에서 남남협조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으며 경제전략의 실현을 위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다가스까르대통령은 오늘날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동의 발전계획들을 세우고 적극 추진시키며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아프리카, 이란, 먄마 등 여러 나라 수반들과 대표들도 반둥정신의 요구대로 나라들사이의 정치도덕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며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와 반둥회의 60돐 기념행사는 반제자주, 단결과 협조를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의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네팔에서 지진피해 확대, 애도기간 선포

네팔에서 최근에 있은 강한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1일현재 사망자수와 부상자수가 각각 6 254명, 1만 4 357명으로 늘어났다.

리재민수는 45만 4 769명에 달하고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구조작업에 난관이 조성되고있으며 사망자수는 더 늘어날것으로 예견된다고 한다.

네팔정부가 4월 28일부터 나흘동안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하였으며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군사시설들에 대한 서방의 사찰시도 배격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최근 자기 나라의 군사시설들에 대한 서방의 사찰시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미국방장관이 앞으로의 최종핵합의에 이란의 군사시설들에 대한 사찰내용이 포함될것이라고 역설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란의 방위력은 렬강들과의 협상의제가 아니며 어떠한 핵합의에도 그것이 상정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핵수석협상자 아빠스 아라그치는 이란의 미싸일이 탄도미싸일이든 아니든 협상상대측의 감독과 감시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으면서 나라의 군사 및 미싸일능력을 감시할데 대한 내용이 최종핵합의에 포함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부사령관도 얼마전 군사시설들에 대한 그 어떤 사찰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이란의 군사시설들에 대한 외세의 사찰은 령토강점이며 그 사찰을 받아들이는것은 곧 민족적인 굴복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사찰을 꾀하는자들에게는 가혹한 징벌이 기다리고있다고 그는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069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